

원철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연기론, 세상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6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긍정, 부정도 하지 말고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라.
욕심이 없다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8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10호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재외한인 불교 포교 '빨간불'

미주한인 개신교 압도적 우위… "재독 포교가 해법"

미국 한인 사회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포 사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교민들에 대한 포교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가 '빨간불' 이라는 방증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는 최근 '한국의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에 대한 6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71%로 이는 한인 10명 중 7명이 교회나 성당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61%는 개신교이고 10%가 가톨릭 신자였다. 불교는 6%로 무종교인(23%)보다도 작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종교인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인은 29% 였는데 그 가운데 개신교 신자는 18%, 가톨릭 신자는 11%였다. 한국의 불교신자는 23%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적, 양적인 면에서 한국불교가 기독교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총 4096곳으로 한국 사찰은 캐나다까지 포함해 90여 곳에 불과하다. 미주 한인 교회 중 1만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단일 교회도 상당수 존재하나 사찰의 경우 매주 100명 정도 참석하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장(조계종 국제포교사)는 "현재 미주 한인을 200만 명정도로 추산한다. 한국에서 불자였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개종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부터 체계적인 교리와 습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 개종한 것으로 이는 한국불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자 불교로서 불자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불교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타종교에 비하여 부족했다"면서 "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조계종이 특별교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민 포교는 해외 교민 전법에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유럽에서 독일 교민은 영국 다음으로 많다.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대학 아시아연구소 학장이 최근 '불교평론'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만2000여명에 달하는 독일 교민 가운데 불자 인구가 1만명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많으며 개신교 8000여명, 가톨릭 400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여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내 아시아계 불자 수는 약 15만 명으로 베트남계가 약 6만 명, 태국계가 4만 500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큰 불자 그룹이 한국계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인의 독일 이민 역사가 50여년이 채 안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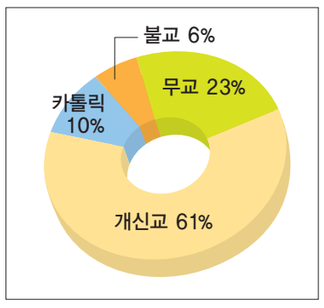
후터 교수는 독일 내 한국불교가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마음선원과 베를린 국제선원, 독일 관음선종 등 3곳의 한국사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매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참여하며 방문자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후터 박사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불교 서적을 소개하고 설법을 함으로서 한마음선원의 신도들은 많은 방문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고 "독일 불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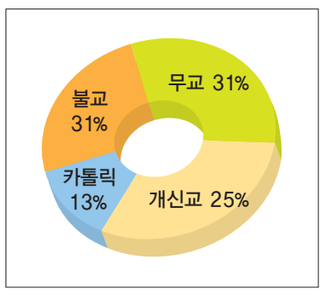
이와 함께 베를린 국제선원에서 진행되는 용맹정진과 참선수행은 선 수행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故 숭산 스님이 설립한 관음선종은 스님의 강연을 기초로 한 서적 발간과 정기적 용맹수행으로 불교적인 배경이 없이 성장한 서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후터 교수는 "한국사찰에서 진행하는 참선 프로그램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인에게 큰 관심을 불러모아 독일 선 수행 붐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다"며 "이런 영향이 한국불자들을 늘게 했다"고 주장했다.

〈표1〉 미주한인 종교분포



〈표2〉 독일한인 종교분포



미주한인 중 개신교 61%
불교 6% 불과… 10배 차이
한인 교회만 4000곳 이상
사찰은 캐나다 포함 90곳뿐

재독 교포 포교가 모범사례
한마음선원 · 관음선종 등
다양한 활동… 교포사회 활력
3만 교민 중 1만 명이 '불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발원합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4일 2박 3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불기 2558년 하계 군승 안거 및 포살법회'를 개최했다. 안거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140여 현역군승과 민간인성직자 비구니 스님, 예비군승 6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동참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선배 군승이 중심이 돼 포교현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성보박물관 관리 부실 '대책 시급'

문화재청 35곳 점검 결과 관리 부실 평가 21곳

불교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성보박물관 관리를 책임지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불교계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물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찰 3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범어사, 법주사, 금산사 등 국보급 불교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성보박물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호한 A등급을 받은 사찰은 14곳이며 21곳이 관리 불량으로 드러났다. B등급(주의관찰) 사찰은 동화사, 구인사, 수덕사, 마곡사, 선암사,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보림사, 태안사, 직지사, 부석사, 은해사, 봉정사, 청곡사 15곳이었다. C등급(보존처리)을 받은 사찰은 범어사, 법주사, 금산사, 용화사, 무위사, 옥천사 6곳이었다.

A등급(양호)을 받은 사찰은 용주사, 월정사, 선운사, 송광사, 대흥사, 화엄사, 불갑사, 기림사, 불국사, 불영사, 표충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이다.

A등급을 받은 박물관은 대부분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상주하며 항온항습 시설과 소화, 도난시설도 갖춰져 있지만 등급을 낮게 받은 박물관은 대체로 항온항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주사와 금산사, 용화사와 무위사, 옥천사 등은 수장고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성보박물관의 경우 국가가 건립 비용을, 사찰이 유지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찰 단독 운영 부담 커
전기세 月 1천만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엄두 못내

조계종 · 문화재청 협약
관련 교육 강화 등 추진

신동섭 법주사 종무과장은 "수장고를 비롯해 전시실 500평 규모에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 4대를 가동하데 매달 여름이면 1000만원 가까이 전기세가 나온다"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사찰 측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고성 옥천사는 240평 규모에 연간 4000만원, 평창 월정사는 210평 규모에 연간 3억여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미 월정사 학예연구실장도 "작은 규모의 사찰일수록 성보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경우 등록박물관으로 한국박물관협회, 사립박물관협회 등의 학예 지원으로 학예사 인건비의 80%수준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사찰과 성보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확충에 들어갈 계획이다. 8월 6일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교육 및 운영관리 강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까지 박물관 등록을 위한 시설확보 지원 계획도 담겨있다.

강경환 문화재청 보존국장은 "유물 다량 소장처 안전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성보박물관 운영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원로 송담 스님 '법인 등록 거부' 탈종 선언

(재)법보선원 이사회 결의 수용… 용주사 선거 영향도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 이유가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반발에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담 스님은 9월 12일 측근들에게 용화선원의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으며, 상좌들에게는 탈종과 종단 잔류를 결정하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단에 남는 상좌에게는 다른 은사를 정해주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화선원 종무실 관계자는 "현재 스님의 탈종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 배경에는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법보선원 이사회에서 9월 9일 종단 법인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본인도 이에 동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용주사 본사 주지 선출에서 빚어진 논란도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송담 스님은 문중의 안정과 화합을 강조하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차기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는 유시를 내렸지만 일부 스님들이 유시가 아니라고 반발했고 선거가 진행됐다.

선학원, 등록 거부 재확인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 총무원의 '법인관리법' 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지 않기로 재차 결의했다.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는 9월 12일 오후 서울 안국동 법인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인관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기존의 결의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9월 30일까지 등록해 달라는 조계종 총무원의 등록안내공문과 관련해 불가함을 회신키로 했다.

또한 선학원 이사회는 총무원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전국 분원에 배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 중 현진스님을 제외한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본격화

오는 10월 16일 총선거… 종도 대표 81명 선출

9월 22~24일 후보자 등록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종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본격화 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10일자로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전체 중앙종회의원은 81명이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51명과 직능대표 20명, 비구니대표 10명 등이다. 직선직의 교구별 의석수는 직할교구 4석, 12교구 해인사 3석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교구는 2석씩 배정돼 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교구 재적승인 비구와 본말사 주지, 본사 암자의 감원, 교구본사 1년 이상 국장 소임자 외에 거주승에게 주어진다. 비구니는 재적승이나 주지, 감원 등 요건에 맞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거주승은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각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피선거권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에게 주어지며 입후보자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구선관위를 통해 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입후보하려면 종무원은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직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 직선직과 직능대표에 중복 등록해도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24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정원을 넘어서면 경선이 치러지고 정수에 미치지 못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다.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치 않은 직능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10월 13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비구니 대표 10명은 전국비구니회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신성민 기자**

"총무원은 직선제 실현 동참해달라"

연대회의, 오는 30일 공청회… 집행부 발표자 위임 제안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대표 발기인 법등 · 명진 · 영담 등)가 종도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를 9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대회의가 여는 공청회는 '총무원장 직선제가 왜 이 시대의 종단 과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집행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를 참여시켜 △바람직한 총무원장 직선제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인 종단 지도자 선출방법 등을 의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17일까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를 확정했으며,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주제발표자 1명과 토론자 1명의 선정을 위임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12일 현재까지 총무원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문중과 계파정치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파승가 행위에 따른 선거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총무원 집행부와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와 뜻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소통 · 치유 주제 연수 교육 시행

불교상담개발원, 10월 16~18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스님)이 원활한 소통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을 펼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와 공동으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선센터에서 '나와 너, 관계를 깨우는 의사소통_불교와 심리를 활용한 소통과 치유'라는 주제로 조계종 연수교육 인증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불교 명상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훈련도 진행된다. 강사로는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이 나선다. 선착순 6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스님과 불교상담개발원 소속 학생은 15만원, 일반참가자는 20만원이다. 문의 (02) 737-7378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1009호 31면 오피니언 발언대 코너에서 가섭 스님의 직함인 '前 조계종 교육부장'을 '**조계종 교육국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부석사 불상 반출 경위, 정부가 조사한다

문화재청, 불상 日반출경위 조사위 발족

정부 차원 조사위 구성 세번째

미술사학자 · 보존전문가 등 참여

보수연대 추적해 반출 시점 추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日반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일본 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월 11일 검찰로부터 압수된 고려시대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의 반출 경위와 세부 정보 등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불교미술사학자와 보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반환 논란이 벌어진 문화유산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문화재반환 교섭과 201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 고문서의 반환 협상에 이어 세 번째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은 지난 2012년 10월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한국에 들여왔다가 압수된 것으로 이 중 부석사 불상의 경우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는 한국 학계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이 불상들을 제자리인 한국에 안치하기 위한 봉안위원회가 구성돼 일본정부의 반환요구에 맞서 일본현지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불상 안치를 두고 한일간 반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도에서 이들 불상이 기증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적이 판매돼 한국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문화재청 측은 "검찰이 공식문서를 통해 조사를 의뢰했고 문화재청 내부에서 조사위 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사위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도난 불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많았지만, 관리권을 가진 법원과 검찰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미뤄왔던 것"이라며 "조사위에서는 도난 불상들의 일본 반출 경위에 우선 초점을 맞추며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으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와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등 고려시대 불교미술사 전공자와 보존전문가,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감정관 등 6~7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먼저 부석사 불상의 경우 보존을 위해 수리한 흔적이 많은 만큼 보존과학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반출 시기를 추적할 계획이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상의 반출 시기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일본에 갔다면 이양했다는 기록이 남지만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위 구성 소식에 대해 서산부석사제자리봉안위원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등 민간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사위에 민간단체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前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는 "2011년 조선왕실의궤 환수 당시 민간단체가 물꼬를 텄지만 정작 환수가 임박하며 정부가 민간단체 참여를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며 "일본 측 불교계와의 협상 등을 고려해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위 결과에 따라 부석사 불상의 제자리 봉안 및 반환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법원은 부석사 불상의 반출 경위가 판명될 때까지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는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불상 2점은 불상의 조성시대와 기본 양식 등의 1차 정보만 파악된 상태로,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행자교육 교재 개정 발간

교육원, 행자 대상 배포

체계적 일상 교육 기대돼

교리 · 습의 등 10권 구성

한글화로 이해 수월해져

조계종 행자교육에 새로운 교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행자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최근 행자교육교재〈사진〉를 새롭게 발간했다. 교육원은 우선적으로 지난 8월27일 회향한 47기 수계교육에 입교한 행자들에게 교재를 나눠줬으며, 종단 등록 행자들에게도 교재를 배포했다.

그간 조계종 행자교육은 개별사찰에서 재량에 맡겨 왔다. 〈교리와 실천 1, 2〉〈습의교육〉〈독송집〉〈경구독송집〉 등 기존 교재가 있었지만 내용이 책 1~2권에 묶여 기술되고 현장 활용도도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어왔다.


조계종이 새롭게 발간한 행자교육 교재.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이런 요구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교재는〈부처님의 생애〉〈기초교리〉〈초발심자경론〉〈사미율의〉〈사미니율의〉〈사십이장경〉〈조계종사〉〈행자필수염불〉〈습의교육〉〈경구독송집〉 등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이들 교재는 기존에 수록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했으며, 부처님 생애와 조계종사 등은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 기존 교재의 오탈자와 윤문작업도 이뤄졌다. 또한 한글화를 기조로 한문사용을 최소화해 한문이 낯선 행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 질을 박스에 담아 어디든 휴대하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원은 종단 등록을 마친 행자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배포하고 있다. 남행자에게는〈사미율의〉를 포함 9권이, 여행자에게는〈사미니율의〉를 포함 9권이 각각 전달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기존 행자교육 교재를 보완 · 수정해 새로 발간한 이번 행자교육 교재는 일선 사찰에서 일상 행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단 표준 교재를 활용한 체계적인 행자교육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티베트 난민 민수씨 귀화 끝내 불허

네팔 출신 티베트 난민 민수씨의 한국귀화가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9월 10일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다와파상(38, 한국이름 민수)씨가 귀화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민수씨는 1997년 한국에 들어와 2006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세 아이를 낳는 등 18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왔다.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네팔 ·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에 따른 철거위기에 몰리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5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해당 사유로 2013년 귀화신청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수씨는 법무부의 귀화불허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귀화불허 처분의 근거인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국사 주지 후보 종우 스님 선출

5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에 종우 스님이 선출됐다.

11교구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타)는 9월5일 주지 후보를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구성원 99명 중 38명만이 참석했다.

종우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불국선원 선원장과 분황사 주지를 역임했다. 종우 스님은 주지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데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범여 스님이 종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이 9월 5일 불국사 주지 후보로 선출된 종우 스님〈사진 왼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담 화 문

한국불교태고종 종도여러분!

지난 해 9월,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종도여러분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 제25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꼭 일 년의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저는 송구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난마처럼 얽히고 바위처럼 굳어진 관행과 구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혼란과 반목의 구시대적 적폐를 재연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하여 총무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종도 여러분들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원로회의 큰스님들의 우려가 담긴 퇴진권고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원로회의 큰스님들의 총무원장을 향한 질타와 경책은 가슴 깊이 새겨 향후 종단 운영의 과정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여러분!

현재 종단은 막대한 부채로 인한 신용하락과 그에 따른 상환의 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납은 지난 9월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종단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의 부채가 왜 발생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납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종무행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소납은 작금의 혼란이 한국불교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납은 일시적 혼란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때 한국불교태고종은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여러분!
소납은 당선 이후 지금까지 총무원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해 현실과 타협하거나 잘못을 보고도 외면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음 집행부는 더 이상 굴곡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몇몇 소수의 스님들이 종단을 쥐락펴락했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더 이상 편법이 통용되는 종무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종무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불교 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여러분!

한국불교태고종은 지금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안주할 것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태세력에 의해 종도들의 개혁열망이 또 한 번 무너진다면 한국불교태고종은 더 이상 회생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소납은 한국불교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종도여러분들께서도 그 길을 위해 원력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소납은 다시 한 번 종단발전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종도여러분께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8년 9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부처님 생애 학습교재 영상으로 탄생

청보리회, 10부작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 완성

40년전, 회원들의 발원 담아
부처님 생애 중심으로
불교 스터디용 교재 제작


'청보리'가 인도 성지순례 등을 통해 부처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10부작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를 완성했다. 사진은 회원들의 인도 성지순례 장면.

김재영 법사가 이끄는 붓다 메신저 '청보리'가 10부작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Buddha Sakyamuni)'를 완성 시사회를 갖는다. 이 영상은 20분 미만의 영상물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아기부처의 강생부터 10부 대열반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처님 법문을 곳곳에 삽입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붓다 석가모니'는 1978년 김재영 법사가 이끄는 동덕불교학생회와 청보리 회원들이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의 영상작품을 제작해보자'는 발원을 하고 기금을 모아온 데서 시작되었다. 김재영 법사는 "40여년 가까이 꿈꾸어왔던 부처님 생애 영상작품을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다. 부처님 삶을 우리들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현장체험 학습용 교재로, 붓다 스터디 영상 10부작 (총길이 3시간 17분)으로 완성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붓다 석가모니'의 제작 목적은 우리 시대 불교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데에 있다. 특히 청보리가 강조하는 '파리사(Parisa)'사는 '둥그렇게 둘러 앉는다'라는 뜻으로 사부대중들의 평등한 불교도 공동체를 일컫는 명칭이다. 부처님이 수천수백개의 파리사에 둘러앉아 함께 대화하고 토론했던 덕분에 초기불교는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재영 법사는 "불교 공동체 붓다 스터디용 교재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직장 동네 가정 등 생활처 곳곳에 파리사와 같은 불교 스터디가 생겨나 붓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영상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영상이 완성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동덕불교학생회와 청보리 순례단 12명은 2013년 1월 인도 8대 성지를 다녀왔다. 이들이 수행하는 영상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고 석명용 사진작가가 이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또한 사진작가 한북 스님이 수천 장의 관련 사진을 희사했으며 김용근 거사는 인터넷에서 많은 보조자료를 수집했다. 김재영 법사는 2년여에 걸쳐 대본을 수없이 고쳐 썼고, 前 MBN PD 출신의 정철기(Net 대표)씨가 4개월 넘게 정성을 기울여 영상작업을 마쳤다. 또한 제작경비 3천만원은 청보리 회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청보리회는 9월 25일 오후 2시 우리함께 빌딩 6층 우리는 선우 법당서 불교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를,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대중 공개시사회를 갖는다.

정혜숙 기자

올 가을 전국은 사찰음식 향연

불교문화사업단, 16개 사찰 '우수사찰음식행사 지원' 선정

천고마비의 가을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사찰음식 행사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는 일반인들의 사찰음식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2014 우수사찰음식행사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공모에 선정된 16개 사찰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다양한 주제의 사찰음식 행사가 개최된다.

거제 금강사는 오는 10월 19일 경내에서 '2014 세계여러나라 음식 및 사찰음식 전시회'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사찰음식과 세계음식을 전시하며 사찰 만두 빚기, 시식회 등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사천 다솔사는 오는 11월 1~2일 다솔사와 봉명산 일대에서 '다솔사 가을 산빛 가람제'를 개최한다.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부터 사찰요리 전시, 웰빙요리 경연대회, '자연생태 주의로서의 사찰음식 문화의 현대화와 방향성' 주제 강연 등으로 꾸며진다.

지역 산사음악회와 사찰음식이 연계된 행사도 진행된다. 서산 부석사는 오는 10월 4일 산사음악회와 연계한 사찰음식 홍보행사를, 강화 전등사에서는 오는 9월 21일 아시아인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와 체험행사도 열린다. 여주 신륵사는 10월 7일 나옹문화예술제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약선 요리 한상차림' 행사를 진행하며, 안동 서악사는 '청소년축제와 함께 하는 웰빙 사찰음식 체험 한마당'을 10월 18일에 의성 고운사 일원으로 연다.

청소년 · 지역 축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

또한 양평 용문사는 일반인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 및 발표회를 10월~12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부설 자연음식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관련 우수 지역문화행사를 지원해 사찰음식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사찰의 사찰음식행사 수행역량 강화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4 우수 사찰음식 행사

사 찰 명	행 사 명	시 기	장 소
거제 금강사	2014년 세계여러나라 음식 및 사찰음식 전시회	2014.10.19	금강사 경내
전주 금선암	전북의 맛에 정신을 더하다 (지역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전)	2014.09 ~ 2014.12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사)자연음식문화원 체험관
사천 다솔사	다솔사 가을 산빛 가람제	2014.11.01 ~ 2014.11.02(2일간)	다솔사와 봉명산 일대
강진 백련사	차(茶)와 사찰음식	2015.01.31 ~ 2015.02.03(4일간)	백련사
서산 부석사	산사음악회, 사찰음식을 만나다	2014.10.04	서산 부석사 경내
안동 서악사	청소년 축제와 함께하는 '웰빙 사찰음식체험 한마당'	2014.10.18	의성 고운사 일원
완주 송광사	아름다운 연 음식 – 전주 비빔밥 축제	2014.10.24 ~ 2014.10.27(4일간)	전주시 한옥마을 일원
여주 신륵사	청소년을 위한 '약선요리 한상차림'	2014.10.07	신륵사
이천 영월암	제6회 영월암 마하연사찰음식 문화한마당	2014.10.09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
세종시 영평사	영평사 구절초와 사찰음식	2014.10.02 ~ 2014.10.19	영평사 사찰내
양평 용문사	일반인들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 및 발표회	2014.10 ~ 2014.12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부설 자연음식연구소
평창 월정사	제3회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2014.10.02 ~ 2014.10.05(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밀양 정각사	사찰요리 洞洞屬屬(동동촉촉)	2014.10.19	정각사
광주 증심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과 함께하는 '도심에서 만나는 사찰음식 맛있는데이(day)'	2014.09 ~ 2015.01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빛고을자연사찰음식 체험관 요리실습장 등
강화 전등사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사찰음식 작은음악회	2014.09.21	전등사 경내 월송요
서울 화계사	미정	2014.10.17	화계사 열린마루

세계의 사찰음식 봉녕사서 맛보자

봉녕사, 10월 3~5일 세계사찰음식 나눔 잔치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10월 3~4일 경내에서 '제6차 봉녕사 세계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찰음식을 알리고 일본, 중국, 스리랑카, 미얀마, 티베트, 네팔, 부탄 등 불교국가의 사찰음식을 비교해보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선재스님의 오래된 절집의 발효음식 △사찰음식경연대회 및 세계 사찰음식 전시 △대안스님의 사찰 음식 △전통불화(도일 스님)& 불교카툰전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학인 스님 염불시연과 공연마당 △내빈 저녁공양 등으로 진행된다. 봉녕사측은 "전세계 다양한 사찰음식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1)242-5412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언론문화상 9월 15일부터 접수

조계종(이사장 자승)이 주최하는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요강이 발표됐다. TV · 라디오 · 신문 · 뉴미디어 등의 불교 관련 작품에 수여되는 불교언론문화상은 4개 분야에 상금 총 4,000여 만원이 주어진다.

각 부분별로는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1작품(상패 · 1000만원) △불교언론인상 1인(상패 · 500만원) △TV 부문 최우수상(상패 · 500만원), 우수상(상패 · 상금)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상패 · 500만원), 우수상(상패 · 상금) △신문부문 최우수상(상패 · 500만원), 우수상 △특별상 3인 이내 등이 각각 주어진다.

조계종 문화부는 "작년부터 특별상 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영화(애니메이션 포함)는 물론 광고,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의 뉴미디어 분야가 포함돼 더 풍성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응모방법은 직접 응모 혹은 추천 응모(언론 및 불교관련 분야 단체 또는 전문인사의 추천)가능하다. 출품대상은 2013년 10월 1일~ 2014년 9월 30일까지 제작 방송된 작품으로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 1부를 공통 제출서류로 내면 된다. 기본양식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 buddhism.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9월 15일~10월 15일(당일 소인 유효)까지 (110-210) 서울 종로구 북촌로5가길 28번지 202호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 · 사단법인 보리로 접수가능하다.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한국학 연구지원 25억 받아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2014년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 전국 대학 중 최고액인 25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동국대는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2014년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 경제학과 김낙년, 법학과 조성혜,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가 선정됐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동국대는 3년 간 총 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낙년 교수가 매년 3억 5000만원씩 3년 간 총 10억 5000만원을, 조성혜 교수와 김용현 교수는 매년 2억 5000만원씩, 3년 간 총 7억 5000만원의 국고를 각각 지원받는다.

김낙년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장기 역사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서(국문?영문)의 발간', 조성혜 법학과 교수는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군사)사례 DB구축: 1945~2015'의 연구과제를 각각 진행하게 된다.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은 한국학 분야의 토대연구 지원을 통해 학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 생산의 원천을 제공, 독창적 연구이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신규 계획서는 모두 150여 과제이며, 그중 15과제가 선정됐다. 대학별로는 동국대가 3개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10개 대학은 각각 1개의 연구과제가 채택됐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와 함께 고려대 이진한 교수, 인하대 복기대 교수가 3년 간 각 10억5000만원의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대, 제19회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는 9월 19일 오후 2시 금강대학교 본관 5층 사이버강의실에서 '티벳어 古사본 문자의 특징, 그리고 대장경 판본 간의 異讀 발생 이유'를 주제로 제19회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오노다(일본 교토 불교대)교수가 티벳불교의 사본 및 문자 연구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권탄준 불문연 소장은 "티벳불교 관련 고사본에는 사본연구자들조차 접근하기 쉽지 않은 티벳어 고사본 문자의 특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더프라미스, 지역에 첫 사무실 개소

불교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The Promise)'가 서울과 해외에 이어 지역에 첫 사무실을 개소했다.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는 9월 13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 청운대에서 미얀마, 동티모르 등 해외본부에 이어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휘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김관용 경북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이어 삼성전자와 LG 구미사업장의 후원금 전달식, 지역 가게들이 모여 만든 '행복나눔가게' 1호점 지정식이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일 주 문



순천 송광사 고승 재조명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9월 20일 서울 법련사에서 '송광사의 고승 나옹과 제자 무학, 고봉 재조명'을 주제로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축구단 창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9월 14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바이로차나' 청소년 축구단 창단 고불식을 개최했다.



오지마을 자장면 봉사
양양 낙산사 주지 도후 스님은 9월 16일 양양 현북면을 시작으로 하반기 오지마을 자장면 공양 봉사를 시작한다.



땡큐붓다콘서트
찬불가수 자명 스님이 음성공양 3집 음반 발매 기념 '땡큐붓다콘서트'를 9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봄'에서 연다.



추석 맞이 어르신 초청 만발공양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29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나눔잔치를 열었다.



행원문화상 시상식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24일 낮 12시 강남구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 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진흥원 장경호 거사 39주기 추모법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3일 BBS불교방송 다보원에서 장경호 거사 39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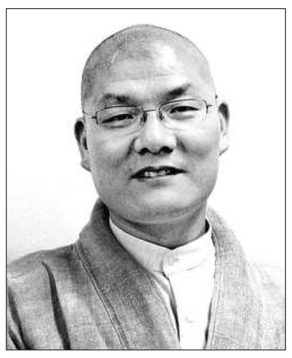
〈인사〉 문화재청 승진 · 전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월 1일 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했다.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부이사관 이경훈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김성일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서기관 김종수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안형순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기술서기관 박용기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원성규
△대변인 서기관 안형순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서기관 윤순호
△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부이사관 이경훈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연웅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학예연구관 김성배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학예연구관 이재필

"인간에 대한 서비스가 불교 복지"

신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재단설립 20년 라이브러리 구축
불교복지 비전 구체화할 것
시설장 교육 · 회의 활성화도
질적 · 양적 성장 함께 이룰 것

지난 8월 27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임명된 보경 스님(서울 법련사 주지). 스님은 요즘 오후 대부분을 재단 사무실에서 보낸다. 일이 없어도 책을 읽으면서 저녁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허다하다. "자리를 지키면서 호흡을 느끼는 것이 자신만의 업무를 익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 역사와 그 속에 내재한 공공성에 대해 한 시간 가량 강의를 하기도 했다. 불교복지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재단 수장을 맡게 된 스님에게서 부담감과 열의가 동시에 읽혔다.

"불교의 복지 서비스는 휴머니티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종교적 표현이죠."

보경 스님은 인도 성자 라마크리슈나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간에 대한 봉사가 종교의 근본이자 역할이라는 것이다.

내년이면 설립 20년을 맞는 재단에 발맞춰 불교 사회복지 이념 정립을 해 놓고 싶다는 것이 스님의 원력. 단순히 재단만의 역사가 아니라 불교가 한국에서 행한 사회적 역할의 역사인만큼 이에 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 흐름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동안 불교 복지에 이렇다 할 기조와 지향점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던 만큼, 이를 통해 불교 복지의 비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겠다는 발상이다.

스님은 "불교 복지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양적 성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제고하고 종도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면서 서비스 질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불교 복지 시설장들과의 회의 · 교육도 강화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생각이다. 재단은 이들의 생각을 모으고 연결해주는 허브가 되어 서로 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단이 꾸준히 추진중인 교구본사별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며 중앙과 교구의 복지이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보경 스님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3년 임기의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센터는 미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는 스님은 이번 방문을 통해 주변에 신경써야할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보경 스님은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에 요익중생의 마음으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983년 송광사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경 스님은 송광사 총무국장, 교육원 연수국장,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9월 8일 조계사 한가위 다례재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9월 8일 경내 대웅전에서 한가위 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5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해 영가 위패가 놓인 제상을 향해 제주(祭主)와 불자들은 정성스럽게 차를 올렸다.

법상 스님은 기도에서 "맑은 차 공양 받으시고 덧없는 애욕의 갈증을 푸소서. 이기심에 찌든 편협한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고 큰 서원을 이루시라"고 기원했다. 이날 다례재에 참가한 대중들은 위패를 소각하며 회향한 뒤 송편을 보시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온 김미옥 씨는 "매번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며 "온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바라면서 절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는 한가위를 앞둔 8월 31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가위 행사를 열기도 했다. 조계사 전법국장 지현 스님은 "이주노동자들과 우리는 국적과 말이 달라도 하나"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랑나눔 실천 '사랑의 쌀' 전달



대한불교 무량종 화엄정사 주지 보광 스님은 9월 12일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0㎏ 300포를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에게 기탁했다.

보광 스님은 지난 2005년 대한불교 무량종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혜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대한불교 인천 화엄정사를 창건해 불심을 키웠다.

평소 저소득 양곡지원, 밑반찬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서구청과 '사랑나눔 실천 활동' 협약 체결이후 석남동을 비롯한 서구 전역의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각종 주민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엄정사 주지 보광 스님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생들을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며, "사랑나눔 실천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각원 · 서울 중부서, 경승 위촉식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과 서울 중부서(서장 윤소식)가 경승 위촉식을 봉행했다. 동국대는 9월 3일 중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들의 불교신행을 지원하고 법회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경승 위촉식을 봉행했다.

위촉식에서는 마가 스님을 비롯해 요경스님, 법찬스님, 정천스님, 명진스님 등이 경승으로 위촉됐다.

정각원장 법타스님은 "중부경찰서장님의 관심과 배려로, 동국대 스님들로 경승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여고생들 장수사진 재능나눔 화제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지난 9월 5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23명에게 장수사진을 선물했다. 장수사진은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영상제작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5월 촬영한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직접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만수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어르신들 역시 학생들의 솜씨가 전문 사진가 못지 않다며 흡족해하며 고맙다고 화답했다. **배현진 기자**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위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위원장이 9월 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났다.

추모비에 헌화 후 일본군 역사관을 둘러본 한 위원장은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윤주경, 김현장 국민대통합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국태안민 남북통일 / 창조경제 민족화합 / 나라위한 대법회
불기 2558년 율맥대본산 아일다율원

제1회 범종단 용화사 금강계단 구족계 / 국제보살계 戒

석가여래咐囑 : 불자여! 율법의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제방불자 승가여! 재가여! 좋은인연 맺어가는 보살의길 향해
종단을 초월하여 한국불교 계율의 율법을 지키고저 서원세워
갑오년 부처님 지혜력 · 자비력 · 가피력 나라위한 서원 대법회에
깊은 뜻과 마음으로 청정계단에 동참하여 무루복락 지으소서.

● 삼 화 상 / 전계화상 수진대율사 갈마사 혜남대율사 교수사 무관대율사
● 칠 증 사 / 활안. 수법. 수광. 수혜. 수오. 수각. 수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화상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음 9. 23) (목) (2박 3일) (구족계)
10월 18일(음 9. 25) (토) 10시 (보살계)
◆ 장 소 : 전남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 문 의 : 061)381-2683, 055)334-1122 / 팩스 055)328-2762
010-7316-4789 (섭외위원장 수월)
1부] 오전 - 불자위한 보살계 2부] 오후 - 나라위한 수륙재(영가수계)
◆ 공 연 : 중국소림무술단 시범 / 한국태극권단 시범

주 최 : 해동율맥법홍대율사문회 / 주 관 : 한국불교승가단체협의회
계 단 장 법 민 대 회 장 대 광
봉행위원장 수 풍 집행위원장 수 왕
협 찬 : 동참종단 / 승가단체 / 각사암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

지역 장애인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영등포장애인복지관-안전보건공단 협약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충호)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종호)의 추천을 받아 지역 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장애인가정 2곳에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 진행과 동시에 생필품지원은 물론 결연후원으로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점검기술을 활용해 장애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종호 스님도 "안전보건공단 직원분들의 배려가 우리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다"고 감사 뜻을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매달 장애인가정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월 1회씩 정기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복지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마을에서 놀고 일하며 먹자

원종종합복지관, 마을리더 양성교육

경기 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홍갑표)에서는 2014년 마을 리더 양성 교육으로 '마을에서 일구는 인생 이모작' 교육을 개강한다.

카페, 공방, 도서관, 식당 등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가 점차 늘어가면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 일환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강의는 '마을에서 희망찾기' '마을의 귀환' '마을기업이 되다' '삶이 있는 마을'을 주제로 총 4강으로 이루어지며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1번씩 열린다.

1강은 송경용 신부(서울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표)가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지향'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2강은 박학용(동네목수 대표)씨가 '마을로 풍덩'이란 주제로 현장 실습을 함께한다. 이어 3강은 김찬호 교수(성공회대)가 '마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를 4강에서는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사무국장)씨가 '수다꽃, 마을기업이 되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장소는 오정문화센터 음악실이며 20명 선착순 모집이다. 수강료는 총 1만5천원이다. (032)681-0110 **배현진 기자**

도전! 달력모델 콘테스트

경기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성행)에서는 복지관 이용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력모델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사진주제는 '행복'으로 즐거운 순간을 찍은 사진이면 된다.

복지관에서는 이번 콘테스트에 접수된 작품들을 선별해 연말 달력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9월 19일까지며 일정인원을 선발해 상품도 수여할 예정이다. 발표는 9월 26일 예정이며 사진 접수는 메일(ruddk0831@naver.com)로 받는다. (031)477-8510 **배현진 기자**

명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훌훌' 날리자

불교계 대학생 명상 프로그램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기 마련이다. 취업과 학업 및 등록금 마련의 압박감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젊고 창창한 20대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학생 이상이 69.2%였다. 10명 중 7명 가량이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자신만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진 학생은 드물다.

불교계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명상 및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프로그램도 위빠사나 · 간화선 · MBSR 등 종류도 다양하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 8월 개원한 국제선센터는 대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다.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4차례 진행되는 간화선 프로그램은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입재식 및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을 시작하며 6~7일 수행기간 동안 매일 1~2회의 소참(小參)법문과 자유수행을 병행한다.

국제선센터는 "취업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느끼는 학생들을 비롯해 불교와 간화선수행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150여 명의 대학생이 간화선 수행에 참가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만족감을 드러냈다"며 "간화선 수행은 경쟁과 속도문화로 정신없이 질주하는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물질문화로 들떠있는 정서를 순화시켜 주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선센터를 개원한 부산 동명대는 재학생 인성교육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선체험 등 한국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제선센터…간화선 집중수행
"마음 안정 찾고 건강 좋아져"
동명대 세계선센터, 대학생 위한
마음치유로 인성함양 · 취업 동시에
정토회 · 제따와나 대학생 법회마련

국제선센터는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영어법회와 간화선 법회를 개최해 불교와 명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02)2260-3892

범어사(주지 수불)은 지난 8월 부산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19일부터 15주간 매주 금요일 밤 7~10시까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불교문화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범어사 스님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불교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기 중에는 수불 스님의 특강과 2박 3일의 범어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일정도 포함된다. (051)510-1353

지난해 10월 문을 연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 조계종부산연합회장)는 170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수련장과 다도실, 탈의실, 샤워실 등 총 800㎡(240평)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재학생 인성교육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선체험 등 한국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개원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마음치유와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명대는 재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불자와 시민들의 심신 치유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선센터는 그동안 교양과목 '명상과 현대사회' '전통예절과 현대사회'를 개설해 재학생을 지도했다. 또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선과 힐링' '다도 특강' '인도문화와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불자와 시민까지 참여하는 '선수행학교'와 'MBSR(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했다.

특히 동명대는 최근 선정된 교육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Advanced College of Education)을 통해, 이번 2학기부터 세계선센터 등 주도로 비교과-전공-교양분야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성'과 '직무역량' 등을 한껏 높여 가르치고 이를 '업계 공동 개발 Tool'로 측정하는 '산학일여(一如)교육'으로, 졸업생 절반이 부산상공회의소 인증학위까지 받도록 한다.

동명대는 "요즈음은 '인성'도 실력인 시대"라면서,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교내에 둔 세계선센터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명상과 현대사회' '다도와 명상' 'MBSR'(마음챙김명상.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등으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 학생들이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자기치유로 타인을 더욱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629-3582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붓다 캠퍼스'를 개최한다. 서울 · 청주지역은 9월 25일, 대구 · 지역은 9월 26일 개강하며 매주 1회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관계는 왜 어렵기만 할까? (연애편) △어디로 가야하죠 스님?(진로 편) △내 청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 알아차리고 바로보기 △내 인생 다시보기 △함께 행복해지는 삶 등 다양한 주제의 고민들을 법륜 스님의 영상강의를 통해 해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02)587-8911

제따와나 선원(원장 일묵)은 매주 일요일 오전 대학청년법회 '2030법회'를 진행한다. 1부는 일요 경전법회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명상에 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2부는 대학청년회원들끼리 경전독송과 아비담마 공부를 하고 법회가 끝난 후에는 차를 마시며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 시간을 갖는다. 매월 1 · 3째 주에는 일묵 스님과의 만남과 수행 인터뷰가 마련된다. 선원은 또한 매년 여름 · 겨울에 한 번씩 젊은이를 위한 마음명상 초보자과정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있다. (02)595-511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외국인들, 서울 도심에서 사찰 문화 체험

9월 27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서 진행

외국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산하 문화사업단체인 사단법인 문화나눔(이사장 권영구)은 9월 27일 오후 3시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찰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는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열리며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된다.

외국인들은 목탁치기와 연등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자신에게 편지쓰기, 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찰문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문화나눔은 지난 6월 22일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둘레길 트레킹과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열었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부설법인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문화법인이다. (02)722-0204

이나은 기자

길음복지관, 9월 26일 어린이 그림대회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에서 이마트 미아점 후원으로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9월 26일 길음뉴타운 내 솔향기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아이조아 우리마을' 그림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주제로 자유 그림그리기가 진행된다.

대회는 유아부(5~7세), 초등부저학년(1~3학년), 초등부고학년(4~6학년) 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품권과 상장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5세부터 13세까지며 홈페이지(www.guswc.org)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는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02)985-0161



지난해 진행됐던 '아이조아 우리마을' 그림대회

배현진 기자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념
원로위원 석보행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 육 원 051)893-3346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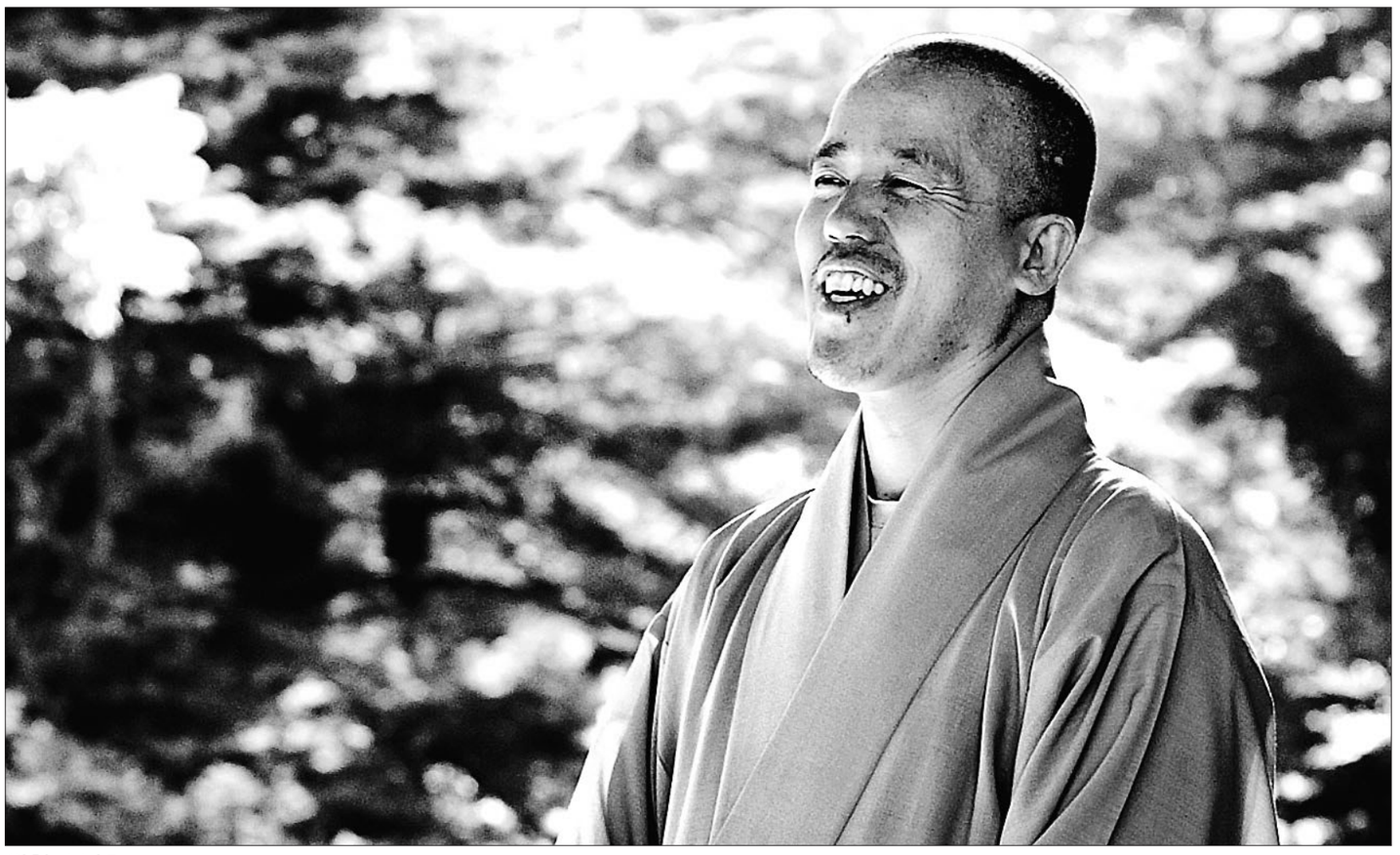
연기론, 세상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길상사 일요법회

원철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불법과 세간법은 둘이 아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자타를 구분짓고 고를 만들어낸다. 원철 스님은 불교 기본 교리인 연기법을 빌어 불법이 2천5백년전 부처님께서 설명한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계속 주지시켰다. 스님은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실천적 삶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면서 사랑, 간고등어 등을 예로 들며 연기론에 관한 풍부한 해석을 시도했다. 8월 24일 서울 길상사에서 있었던 일요법회를 들여다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원철 스님은 …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와 은해사승가대학원을 졸업한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강사,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총무원 재정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해인사승가대학의 학장 소임을 맡고 있다.

불교적 삶의 방식… 연기법 이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유와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자기만의 법칙을 부여합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내가 살아온 방식, 이제까지 추구한 경험이 모여서 결정짓게 됩니다. 많은 가치관 속에서 자기 나름의 삶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춰 살겠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이 산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세우고 있는 전제가 과연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교적 가치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다짐합니다. 불교적 삶의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관한 이야기는 경전에 많이 나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 말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연기를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의 모임이고 그 조건이 흩어졌을 때 현상 또한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고 변하지 않는 것에 필요이상으로 집착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법이라 표현합니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보게 된다' 고 부처님은 이르셨죠. 또한 〈잡아함경〉에서는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유고 피유(此有故 彼有)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차기고 피기(此起故 彼起)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차무고 피무(此無故 彼無)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차멸고 피멸(此滅故 彼滅)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는 시공간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왔지만 부처님이 체계화, 논리화, 이론화시키고 이 작업에 가장 많은 능력을 투자하신분이죠.

삶 속에는 시공간적 연기 많이 일어나

시간적 연기를 이야기해봅시다. 희랍 철학자는 우리는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강물도 나도 끝없이 변해가니까요. 끊임없이 시간적 연기 속에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두고 어떤 이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면도 있고 고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한쪽 변에 치우쳐 생각하는 것입니다. 20대가 말하는 사랑은 지고지순하고 영원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낸 50대는 사랑에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죠.

불교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서 상대를 수시로 사랑하고 수시로 미워하는 것이라는 정의도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어느 날은 사랑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은 미워

'중도' 의 또 다른 이름 '연기'
연기 알면 세상 이해도 높아져
타인 공감하는 능력도 향상
고(苦) 줄여주는 좋은 수단

서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변하지 않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것이 불교적 연기론에 입각한 사랑의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도 연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지역에서 만들어진 차가 차마고도를 지나면서 비를 맞고 습기가 차는 과정을 거쳐 B지역에 도착해 완전히 맛이 달라진 것도 그 예입니다. 조건에 의해 차 맛이 변하게 되는 것, 공간적 연기과정이죠. 녹차가 발효된 홍차도 그렇고 안동의 유명한 특산물인 간고등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덕 바닷가에서 잡은 고등어의 저장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뿌린 소금이 고등어의 맛을 좋게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든지 썩든지 했겠죠. 그렇기에 알맞은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콩이 썩지 않고 콩나물로 자랄 수 있으며 우유를 치즈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단선적이고 기계적으로 연기론을 규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정견의 입장에서 연기론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연기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관점에서 연기론을 해석하려 든다면 부처님께서 보신 연기론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은 정견입니다.

〈금강경오가해〉 중 야보 스님은 공간적 연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습니다.

천척사륜직하수(千尺絲綸直下垂)
천척의 낚시줄을 곧장 드리우니
일파자동만파수(一波自動萬波隨)
한 물결이 일어나니 만 가지 물결이 따라 일어나네
야정수한어불식(夜靜水寒魚不食)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만선공재월명귀(滿船空載月明歸)
배에 가득 공연히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구나

연기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한 물결의 파동이 만가지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이 말은 현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되어 밀려오고 육지를 덮치게 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연기는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에 인공적 연기가 더해지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을 때 지구에 일파만파 커다란 위협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자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 반성하게 됐죠.

이처럼 연기는 우리 삶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연기 법칙이 더욱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죠. 연기론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연기의 속성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과 수증기 사이를 왕복하는 것도, 철근이 상온에서는 타지 못하다가 고온에서 타는 것도 일종의 연기죠. 나뭇가지가 불쏘시개, 지게 작대기, 회초리가 되는 것도 조건 변화에 의해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지침에도 연기론적 원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수지침에서는 손바닥 안에 오장육부가 있기에 각 장기에 해당하는 손바닥 부분을 찔러주면 몸에 있는 다른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에서 온 몸을 다 보는 거죠. 손바닥의 경혈이 장기들과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학적으로 많은 이들이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수지침이 오늘까지 없어지지 않았겠죠. 수지침의 역사가 곧 연기론 검증의 역사입니다.

이해 넘어서 행동으로 표현돼야

연기라고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세상 존재하는 것이 연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연기를 알게 되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연기론은 고상한 삶의 이론이 아니라 고(苦)를 줄여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중국 화엄종파 초조인 두순 선사는 '윗동네 소가 풀을 뜯어먹었는데 아랫동네 있는 말이 배탈이 나서 천하의 명의를 찾으니 돼지 왼쪽다리에 뜸을 뜨는구나' 라고 연기 법칙을 표현했습니다.

연기 법칙은 이해에서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죠. 중도가 바로 연기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양변을 같이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중생적인 면과 부처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한 사람의 양면을 동시에 봤을 때 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연기법을 알게 되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는 것 뿐 아니라 그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기쁨과 슬픔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중도적 안목으로 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에 입각한 삶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임제스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수처작주.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인 양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 순간순간 연기론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이상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체계인 연기와 중도에 대해 명확한 안목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활안스님
제 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 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전북지역, 본사 중심 신도회 'START'

9월 6일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 총신도회 창립

최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신도회 창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24교구가 본사 총신도회를 비롯해 교구신도회를 창립하고 신도조직화에 나선다.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총신도회 창립법회를 열고 각급 신행단체를 아우르는 총신도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선운사 거사림, 관음회, 합창단, 청년회,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선사모) 등 신행단체 임원들과 회원불자들 30여 명이 동참했다.

선운사는 그동안 다양한 신행단체가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총신도회는 있지 않았다. 총신도회는 신행단체간 교류와 신도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총신도회장으로 정만수 고창군의회 전문위원이 선출됐다. 또 부회장단에는 각급 신행단체 회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이왕연 거사림 회장, 신동경 선사모 회장, 관음회 박정숙 회장, 백금숙 합창단장이 부회장에 선임됐으며 정남규 청년회장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법회에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선운사 총신도회의 결성은 사부대중이 함께 선운사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기도와, 수행, 교육 등 신도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신행단체의 역할을 총신도회로 결집해 세분

각급 신행단체 총괄하는 조직 구성

사찰 재정 공개 및 운영 참여 논의

21일 제24교구신도회도 발족 예정

화된 역할 분담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총신도회는 창립과 동시에 주지 법만 스님과 포교국장 성진 스님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신도회 임원들은 선운사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고창 선운사는 9월 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총신도회 창립법회를 열고 각급 신행단체를 아우르는 총신도회를 발족시켰다.

발전을 위해 사찰 구성원들의 힘이 결집돼야 함과 함께 향후 총신도회가 사찰운영에도 참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선운사 재정을 총신도회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선운사 복지법인 이사에도 총신도회 임원이 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총신도호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는 △상조회 창립 △24교구 신도회 발족 등을 결의했다.

상조회 창립의 경우 선운사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하되 재원마련은 신도회가 바자회 개최를 통한 수익금과 회비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조 뿐만 아니라 경사에도 적극적으로 총신도회가 동참키로 했다.

이와 함께 9월 21일에는 제24교구 60여개 말사를 총괄하는 교구신도회를 발족키로 했다. 선운사에서 열릴 2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참석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사상륙작전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

9월 3일 장사해수욕장서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담)가 주관하고 영덕군 · 장사상륙작전참전유격동지회가 주최한 제35회 장사상륙작전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장사해수욕장 내 위령탑에서 9월 3일 열린 이 행사는 김영재 유격동 지회장, 이진삼 전육군참모총장, 안병태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자문위원 준제 스님, 천주교 강구성당 본당 김원용 신부, 기독교연합회장 오종길 목사, 영덕불교사암연합회장 현담 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 영덕 · 포항 · 울진 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대령, 관욕, 상단불공 의례로 진행됐다. 장사상륙작전에서 전몰한 영혼들을 법석에 청하여 호법선신들의 옹호 속에 상단불공을, 포항불교사암연합회 범음범패 소속 대광 · 현각 스님과 부산전통불교무용연구원 윤영수 불자가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2부 추념의식으로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국민의례와 함께 50사단 장병들이 9발의 조총발사에 이어 이희진 영덕군수의 헌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3일 제35회 장사상륙작전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화와 분향 후 3대 종교의 추념의례, 삼귀의례, 분향식, 추모기도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추념사에서 "전우들의 업적을 알리고 있는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 국민단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을 알려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추념사(안병태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독)에서 "772명의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삼 前육군참모총장은 "역사를 모르는 자는 장래도 없다, 전쟁을 모르는 자

평화도 없다. 국가와 군인이 무엇인지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몰용사 추진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자문위원 준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 행사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 지역 3대 종교지도자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장학금 ·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다. 김영재 유격동 지회장이 정관에 따라 영덕고등학교 조재영, 김병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매년 위령제행사 때마다 봉사활동을 한 장사리 허동래 부녀회원에게 돌아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서거제로타리클럽 거제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경남 서거제로타리클럽(회장 강도화)이 명절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위탁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에 후원금 90만원을 전달했다.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 서거제로타리클럽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 3세대에게 각각 30만원을 전달키로 결정하고 9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도화 서거제로타리클럽 회장은 "서거제로타리클럽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좋은 일을 지속해왔던 만큼 지역 내의 꼭 필요한 봉사단체로 거듭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경남 서거제로타리클럽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불교와의 인연으로 행복 가득하길"

통도사 영축문화회관 베트남 불자회 법회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 영축문화회관(원장 원산)이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영축문화회관은 9월 7일 회관에서 대구 베트남 불자회(회장 웬 티 흐엉) 300여 명을 초대해 법당을 제공하고 한가위 맞이 선물을 준비해 타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 이민자들을 격려했다.

베트남 불자회는 베트남 틱티엔 퓐 스님을 이번 법회에 초청했으며 통도사에서는 포교국장 선본 스님이 참석해 베트남 불자들을 환영했다.

선본 스님은 "베트남 · 미얀마 한국 등 언어와 표현방식은 달라도 부처님의 말씀과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와의 인연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행복으



영축문화회관은 추석을 맞아 대구 베트남 불자회 300여 명을 초대했다.

로 이끌어줬으면 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베트남 불자회는 지난 4월 통도사에서 공식적인 창립법회를 가졌으며 영축문화회관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 상담 등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 열린다

9월 19일 청주청원불교聯… 다문화 가정에 장학금 전달식도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가 주최하는 '2014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가 9월 19일 청주 무심천에서 열린다.

2014직지유등문화제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기념해 예년보다 확대돼 열린다. 이와 함께 9월 26일 개막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사전행사 중 전통 문화축제로서도 치뤄진다. 9월 19일 개막식에서는 오후 6시 '유등 띄우기'를 시작으로, 유등문화제 기념공연, 시민음악회가 3시간 가량 진행된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 충북지역 다문화 · 새터민 가정 청소년 20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한편, 직지유등문화제는 2005년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과 연계해 해마다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발전했다. 노덕현 기자

부산 원오사 법화산림법회… 9월 27일 입재

부산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가 생전예수재를 맞아 법화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화산림은 입재인 9월 27일부터 회향인 11월15일까지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용학 스님(범어사 강주), 현진 스님(통도사 강주), 지안 스님(반야암 회주, 조계종고시위원장장),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 반산 스님(쌍계사 강주),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수진 스님(범어사 율학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 법화경을 주제로 진행된다.

원오사는 "신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큰 스님들의 법화경 법석을 통해 자신의 업을 뉘우치고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번 법회의 취지를 밝혔다. (051)542-7949

김나영 객원기자

한국불교상담학회 글쓰기 명상프로그램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가 글쓰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2014 글쓰기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9월 27일~28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김성수 마음과학연구소 대표(소설가)가 특강 강의자로 나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관 1층 세미나실에서 참가자들을 만난다.

강의 내용은 글쓰기 명상에 대한 이해와 나누기, 인생 연대표 작성하기 등 작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순서들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이수시 불교상담전문가 자격인증에 포함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불교상담학회 kbca08@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서방정토와 빛으로 링크(연결)된 지구촌 보물5호 '현지사 대전분원 미타성전', 오탁악세에 염불행자를 서방 극락정토로 이끄는 선봉이 되다!



현지사 대전분원

■ 자성미타 유심정토(自性彌陀 唯心淨土)?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는 '마음이 정토인데 마음 밖에 무슨 정토가 따로 있으며, 우리의 마음 자성(自性)이 아미타불인데 무슨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가?' 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선종(禪宗)의 견해로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종지를 선양하기 위한 종파적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는 불법의 정견(正見)이 아니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원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많은 불자를 오도하는 망어(妄語)입니다. 부처님들은 분명히 계시고 서방정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토법문이 결코 방편이 아닙니다.

■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비밀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원력으로 만들어진 삼계를 벗어난 해탈열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괴겁시에 무너져 없어지더라도 서방정토는 건재합니다. 다겁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공덕이 많은 보살이 가는 세계로서 1번영체(causal body)로 가며 여성이 없습니다. 여성이 왕생하는 경우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변녀성남(變女成男)해서 가게 됩니다. 서방정토의 보살 품위는 9품이 아니고 27품입니다. 서방정토는 아라한들이 머무는 색계(色界)의 최상품하늘보다 높고 청정한 해탈세계이기 때문에 왕생할 보살이 적응하기 위해 영체와는 다른 해탈신(解脫身)이 필요합니다. 이 해탈신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 무량광 빛의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아기 상태이고 정토에 왕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체와 계합하여 40대 초반의 모습이 됩니다. 경전에서 염불행자가 연꽃 위에 화생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서방정토에는 연못이 많고 물은 눈이 부시도록 투명하며 다양한 색깔의 연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땅은 모두 황금색이고 곧은 나무들이 줄지어 있으며 바람에 따라 아주 아름답고 미묘한 음을 냅니다. 열심히 염불하였더라도 마음이 아직 순숙(純熟)하지 못한 염불행자는 바로 정토로 가지 못하고 '대기정토'에서 더욱 수행을 해야 합니다.

■ 대자대비하고 거룩한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은 오여래부처님 중 한 분입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부처님 다보여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보명불을 말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은 무량겁 전에 세자재왕불이 출세 하셨을 때, 그 나라의 국왕으로 있었는데 보리심을 발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法藏) 비구가 되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세자재왕불 앞에서 사십팔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성취한 후 성불하였으니 그가 아미타불이시고 그 부처님이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국토가 바로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좌우보처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입니다. 〈무량수경〉에는 법장 비구의 성불 인연과 극락세계의 장엄이 자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대웅보전 정기법회

■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야

'나무아미타불 염불 한마디가 능히 팔십억겁의 죽고사는 죄업을 소멸시킨다.(念佛一聲 能滅 八十億劫 生死重罪)' 고 하였습니다. 또 고인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염불할 수 있으니 염불법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가재가를 가릴 것 없이 일심으로 염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니 세상 어느 누구도 염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연지대사의 권염불문)' 고 하였습니다. 불자들 모두 염불하여 자성을 밝혀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 '나무아미타불' 염불의 이익

어느 날 현지사의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억종광 빛의 몸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라고 여쭈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미타부처님)를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또 가정이 평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고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경전을 읽고 다라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나를 칭명하면, 나는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그는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 아미타부처님 공부 및 기도법

매일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을 1번 독송하고 다라니(아미타불 무량겁멸죄진언 '옴 모니모니 새야모니 사바하')를 7회나 49회 혹은 108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간절히 합니다. 참회발원은 다겁생을 살면서 지은 신구의 3업죄장을 참회하고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의하여 지계청정하고 이타의 보살행하며 왕생극락하기를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타성전 무량수전

※ 아미타부처님 재일 매월 음력 5일 오전 9시30분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9월 2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0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칠성상회 복합기 사은할인 판매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20,000원(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68,000원(용량:4,000매)
임대시 : 4만원/월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6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105,000원*4색(용량:5,000매)
임대시 : 5만원/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마하연 투 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미얀마 항공 취항 기념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10/27 (단1회)	1,050,000원
만달레이 / 양곤 5일	10/26 (단1회)	940,000원

– 국적기 직항

양곤 5일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0/25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인도&네팔 7대성지 11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 중국 4대불산

구화산 & 보타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일
보현도량(아미산) 5일 11월 25일
문수도량 6일
구채구 황룡 6일

– 대만 정통순례 5일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화엄의 꽃 절집 천정

〈9〉 조계산 선암사 대웅전

縱(종)은 중중무진, 橫(횡)은 연기법계 상징

전통사찰 건축은 석굴암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목조건축이다. 건축재료가 목재인 까닭에 화재에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그런데 사찰의 가람배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밀집도를 가진 유기적인 집합체이므로 화재는 사찰의 존립성마저 위협하는 실재적 마장이 아닐 수 없다. 사찰에서 화마로부터 다양한 비보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예방조치다.

해남 미황사나 여수 흥국사 등에서 초석이나 기단부에 게, 거북 등 바다생물을 조영하고, 완주 송광사, 부안 내소사, 나주 불회사 등 대웅전 천정에 물고기 조형을 베푸는 것도 물의 기운을 빌려 화마로부터 불전을 수호하려는 비보(裨補)성격의 장엄임에 분명하다. 궁궐에서도 마찬가지다.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운다든지, 경회루 연못에 구리로 만든 용을 묻어 둔다든지, 2001년 경복궁 근정전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용(龍)' 자 1000여자로 물 '水' 자를 새긴 붉은 한지 2장과 물 '水' 자가 모서리에 새겨진 은제 육각형 금속판 5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술적 부적이라 할 것이다.



선암사 대웅전 천정에 장엄된 두 문양. 학 문양은 가장자리에, 연화문은 내부에 베풀었다.



불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선암사 불전에 장엄한 비보장치들. 아래 현판사진은 '고 청량산 해천사' 라 새겼다. 조계산 선암사의 옛 이름이다.



중앙 내진영역의 상층천정. 20칸의 우물반자에 팔엽연화문을 입혔다.



내4출목의 장치와 들보 위에 건 충량의 용, 3층 층급 천정구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청량산 해천사에 담긴 뜻… 화재 비보책

순천 선암사는 화재에 의한 상처가 유난히 깊다. 1597년 정유재란부터 1950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사찰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곱 차례 화재 및 방화가 발생하는데, 특히 18~19세기에는 70년도 안되는 세월동안 무려 네 차례의 큰 화재가 연이어서 사찰전체를 거의 전소시키는 지경이었다. 영조 35년(1759년)의 대화재에 이어, 영조 42년(1766년), 순조 19년(1819년), 순조 23년(1823년)의 대화재가 잇따랐다. 1761년 상월스님이 화재에 대한 비보책으로 절 이름을 한때 물의 기운을 품은 '청량산 해천사(淸凉山 海川寺)' 로 바꾼 것도 그 무렵이었다.

불전 판벽에 '海' '水' 자를 투각

선암사는 자연과 조화로운 한국적 원림조영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절집이다. 계절마다 곳곳에 조성한 연못과 오래된 꽃나무들이 화원의 숲을 이룬다. 화원의 아름다움을 지닌 내면에는 화재를 대비한 지혜로운 혜안도 배여 있다. 곳곳에 조성한 연못과 수조는 화재시 방화수의 역할을 하며, 주변에 식수된 은행나무, 차나무 등도 내화성이 뛰어난 수종들이라 산불의 접근을 지체시키고 화마의 위력을 낮추는 방화림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선암사는 또 유난히 담장이 발달해 있다. 매화와 왕벚, 처진올벚 등과 어우러진 봄의 정경은 선암사 고유의 진경수묵화다. 화재시 담장 또한 훌륭한 방화벽의 역할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셈인데, 사찰 곳곳에 화재를 대비한 사려깊은 통찰지가 구현되어 있다. 동시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일상적으로 일깨우고 있으니 대웅전 앞 심검당 판벽에, 또 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량수각 판벽에 바다 '海' 자와 물 '水' 자를 투각하여 오고가는 사부대중에게 화재예방을 환기시킨다. 선암사엔 석등조차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의 깊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선암사 대웅전 지붕 서까래 칸칸에 바다 '海' 자를 넣어 온통 물의 기운을 넣은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의 기운이 뻗치는 결계(結界) 속에 선암사의 핵심불전을 조영한 것이다. 그 역시 바다의 기운을 빌려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보책이면서, 신성의 공간을 수호하려는 결계의 종자(種字)라 하겠다.

상중하 3개 층의 층급 우물천정

조계산 선암사는 9세기말 도선국사가 국토의 남방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지리산 부근에 세운 '남방비보 삼암사(南方裨補 三岩寺)' 의 하나로, '1철불, 2보탑, 3부도' 의 기본틀로 조영되어졌다. 1147년의 기록으로 전하는 〈조계산 선암사 대각국사 중창건도기〉에 의하면 대웅전은 원래 미륵전이며, 2층 중층건물이었으나, 지금처럼 1층으로 된 것은 정유재란 이후 17세기 중창과정 때로 추정한다. 지금의 대웅전은 1823년 대화재 이후, 1824년 6차 중창불사 때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대웅전은 3×3칸의 내4출목 건물이다. 천정은 층층이 들여쌓아 밀어올린, 3개 층의 층급 우물천정이다. 중앙부 내진영역의 천정을 가장 높이 경영한 형태다. 상중하 3개 층을 가진 층급천정은 통도사 적멸보궁과 불국사 대웅전,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등에서 간혹 나타난다.

층층이 쌓아 밀어올린 3개층 우물천정
통도사 적멸보궁, 불국사 대웅전도 비슷
학과 기하학적인 8엽 연화문으로 구성
차별적 농담으로 생명력과 생동감 갖춰

두 가지 문양의 중층적 역학구조

우물천정에 베푼 문양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학(鶴) 문양이고, 다른 하나는 기하적인 패턴으로 도식화된 8엽연화문이다. 학 문양은 우물반자 세 칸 폭으로 사방면에 조성한 하층천정의 가장자리 한 줄에만 경영했다. 후불벽 뒤 천정에는 우물반자만 있고 문양이 없어 학 문양이 베풀어진 우물칸 수는 모두 55칸이다. 그러니까 사방 가장자리 우물반자에는 마치 범자로 결계를 치듯 학 문양으로 신성한 사각 틀을 이룬 후, 그 내부에 8엽연화문으로 연화장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도는 단순한데, 천정의 건축적 연출에서 각 층급의 깊이와 폭의 변화가 불규칙적이고 수리적 비례를 갖지 않아 보다 중층적인 역학적 구조미가 두드러지며, 미묘하면서도 기운 생동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하층천정과 내출목 순각반자와의 높이차는 88cm를 이루는 대신, 하층과 중층천정과는 33cm로 미미하게 줄였고, 다시 중층과 중앙부 내진영역의 상층천정과는 1m에 이르는 큰 높이차를 둠으로써 중앙부에 소실점적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상,중,하 각 층급에 할당한 폭도 높이 차만큼이나 불규칙해서 폭과 깊이의 다변성에 의해 공간의 입체적 양감을 풍부하게 살려내고 있다. 기하적인 정형으로 단순화되어 자칫하면 주목되지 않는 일상의 오브제로 전락하기 쉬운 천정문양들에 어둠과 빛이 차별적 농담으로 풀어져 보다 생명력과 생동감을 갖추게 된 것이다. 폭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해 각 층에 문양을 입힌 우물칸 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하층에 경영된 우물칸 수는 닫집의 우물반자를 포함해서 177 칸이고, 중층은 72 칸, 중앙부 내진영역의 상층천정에는 20 칸, 해서 총 269칸을 펼쳤다. 동일한 문양, 동일한 색상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집중성으로 시선이 결집하는 까닭은 그같은 맺고 푸는 공간역학의 변주에 따른 것이다. 〈순천부 조계산 선암사 제6창건기〉(1828년) 목판기록에 의하면, 1824년 대웅전 중건에 주변의 송광사, 흥국사, 구례 화엄사 등에서 승장들을 파견해 중창불사를 도왔는데, 당시 도편수 등 장인 대부분이 승장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운반노동에 동원된 선암사 승려만도 300여명에 이르렀다니, 그 중창불사의 신심이 능히 헤아려지는 것이다.

가장자리엔 학, 안쪽엔 팔엽연화문

대웅전 천정의 가장자리에 보주를 입에 문 학 문양으로 한 바퀴 두르고, 그 안에 연화문을 장식하는 기법은 조선 중후기 서남해안 지역의 사찰에서 두루 나타난다. 나주 불회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선암사 원통전에서도 나타나고,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서도 눈에 띈다. 천정 가장자리 우물반자 청판에 그린 학은 머리에 붉은 점이 있는 단정학(丹頂鶴)이다. 단정학은 저마다 붉은 보주를 입에 물고 있다. 깨침을 증득한 표징이다. 때때로 학은 아라한의 깨침을 상징한다. 〈삼국유사〉 권3 탑상 제4 '(오)대산월정사 오류성중' 편에 다섯 학 이야기가 나온다. 다섯 학은 곧 다섯 분의 아라한으로, 관음보살의 화현들이시다. 그러니까 궁구의 진리를 증득한 아라한들이시니 부처의 세계 가장자리에 모셨다. 중심부에 무시무종으로 반복해서 베푼 연꽃은 아름다움의 이미지로 차용한 방법가설이다. 그것을 일러 '차사문의(借事問義)' 라 한다. 어떤 사물을 빌려서 세계의 진리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문(無門)의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과 같다. 본질은 '묘(妙)' 다. 미묘하고 수승한 진리, 묘법연화의 꽃이다. 진리 그대로 현현하는 여래이며, 진여법계다. 팔엽연화문의 몇몇에 그 뜻을 드러내고 있다. 연화문의 씨방자리에 범자 '옴' 자 한 자를 새겼다. 〈벽암록〉 19칙에서 구지화상이 한 손가락 법문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의 방편설이다. 만법귀일의 일심(一心)의 뜻이 담담히 조영되어져 있다. 꽃 한 송이 피어나니 그 속에 세계가 열린다고 했던가.

'水' 와 '海', 감로의 화수분

선암사 대웅전 천정의 층급구조로 보이는 종적 세계는 중중무진의 불국토이고, 횡적으로 펼친 세계는 무진연기법계다.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방편으로 나누고 쪼개어서 부처의 세계를 보이는 곳, 그곳이 불전의 천정장엄 세계다. 천정의 칸칸을 씨줄날줄로 내어서 꽃과 범자를 칸칸이 모신 것은 경주 남산 곳곳에 부처를 나투시게 하고, 탑파를 쌓아 불국토를 조성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화엄국토의 장엄이다. 단지 조형새김의 장소가 천정의 평면이고, 산의 바위이며, 비단의 화폭일 따름이다. 조형원리는 불이(不二)다.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고, 머무르는 곳도, 머물지 않는 곳도 없다. 마음의 지혜로 열고 보면 소동파의 시에서처럼, 푸른 산도 청정법신일 것이고, 시냇물 소리도 부처님의 장광설이 되는 것이다.

〈선암사 대웅전 중수상량문〉(1824년)에 그 구절이 있다. "이 가운데 더 없는 법의 진리가 있다. 머무름이 없는 인연이다." 숱한 화마 속에서도 법등의 인연은 이어져서 조계일적(曹溪一滴)의 물길을 내었다. 조계산의 '水' 와 '海' 는 결코 마르지 않는 감로의 화수분으로 뭇 생명을 기르고 있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티베트 수행 · 위빠사나 효과는 다르다”

싱가포르국립대 연구팀 명상법 조사 발표





티베트 · 남방불교 수행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 명상수행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티베트 · 위빠사나 수행 등 유파별 불교 수행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유파가 다른 불교에서 실시하는 두 종류의 명상법을 조사한 결과 유파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티베트 금강승불교(Vajrayana, 바즈라야나)의 ‘본존’(Deity, 데이티)과 ‘자각(Rigpa, 릭파)’, 그리고 소승불교(Theravada, 테라바다)의 ‘지’(止 · Shamatha, 사마타)와 ‘관’(觀 · Vipassana, 위파사나) 수행 등 네 종류의 명상법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위빠사나와 같이 남방불교국가에서 행해지는 소승불교의 명상법과 그 효과로 휴식을 취하거나 주의력을 높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마리아 코제브니코브 부교수와 이도 아미하이 연구원은 이번 실험에서 네팔과 태국에서 실제로 네 종류의

티베트 본존 · 자각 수행은
휴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소승불교 지 · 관 수행은
인지적 작업 능력에 효과 있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명상할 때와 명상한 뒤의 인지적 작업 중 ‘심전도’(EKG)와 ‘뇌파’(EEG)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파가 같은 명상법은 서로 비슷했으며 유파가 다르면 뇌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승 혹은 밀교 수행법에서는 순수한 직관과 삶과 인식의 모든 측면을 비밀스런 가르침을 숙련해 명상수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한다.

소승불교는 육체적인 규율을 강조해 감정을 일으키는 조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소승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4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오온과 모든 인식 가능한 대상에 대해 명상한다.

연구팀은 “소승불교 명상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휴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상 동안 참가자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부교감 신경계는 휴식 ·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티베트 금강승 불교의 명상은 명상하는 동안이나 명상 뒤에도 진정 효과는 거의 없었다. 대신 각성과 ‘투쟁-도피 반응’(긴박한 위협 앞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각성 상태)과 관련한 교감 신경계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20분간 명상을 하기 전과 후에 컴퓨터를 사용한 두 종류의 시각 처리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티베트 금강승 방식의 명상에서만 명상 뒤 인지적 작업 능력이 즉시 극적으로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앞으로 연구에서 혈액 표본 채취를 시작해 명상 활동을 통해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가 얼마나 활발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는 오랫동안 명상을 계속해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리버스데일 학교 ‘명상’ 정규 과정 편성

학교 측, “인성 교육에 탁월, 긍정적 효과 기대”



뉴질랜드에 있는 리버스데일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평정과 집중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명상 커리큘럼 개설방안을 두고 학부모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명상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뉴질랜드 이스턴 사우스랜드(Eastern Southland)의 한 초등학교가 과연 정규 과정에 ‘명상 실수’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

〈Otago Daily Times〉 지는 8일 “리버스데일(Riversdale) 학교가 학생들에게 ‘평정’과 ‘집중’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명상을 커리큘럼에 넣기로 했다”며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찬반 의견을 종합해, 내주중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명상은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디치필드(Ditchfield) 리버스데일 교장은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명상 교육을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도 없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찬반 토론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Otago Daily Times〉 지에 따르면 리버스데일 학교에는 147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 학부모 중 약 50여 명이 반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수행법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스테판 굴릭(S. Gullick) 씨는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통한 자녀들의 배움이 기대되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명상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경한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은 아이들이 앓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엘리슨 베컴(A. Beckham) 씨는 “리버스데일 학교의 ‘명상 교육’은 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종교성’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교육에서 종교성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리버스데일 학교 측은 “‘매일 10분 명상’과 ‘목요일 집중 명상’ 등으로 교육 과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인성을 증진한 데 명상의 효과가 증명된 만큼, 학부모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불교 악기, 태양열 효율 높여

호주국립대 니즈라 박사, 연구 성과 발표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에너지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태양에너지이다. 이는 동시대 과학자들이 태양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티베트불교 명상용 악기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네트워크 ‘Phys.org’를 인용, “호주국립대 광학 연구진이 태양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집열기’를 설계하고 있다”고 전한 〈China Topix〉 지는 “새롭게 선보일 태양열 집열기는 티베트불교의 악기인 singing bowl(이하 씽잉-볼) 모양과 기능에 주목, 연구 · 개발되고 있다”며 “이 집열기는 11월 발간되는 과학저널 〈IEEE Journal of Photonics〉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금속 재질의 씽잉-볼은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을 돕는 악기로, 티베트불교의 명상용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낸다. 호주국립대 니라즈(Niraj) 박사는 “진동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음을 내는 씽잉-볼의 모양과 기능을 태양열 패널 설계에 응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평면 태양열 패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우리 연구팀은 고대의 ‘슬기’를 미래의 ‘가치’로 전환하는 이번 연구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고 말했다.

호주국립대 광학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티베트불교 악기인 씽잉 볼

니라즈 박사는 캠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데 씽잉-볼 모양의 나노 입자의 효율이 높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고, 호주국립대에서 강의를 하며 관련 연구에 매진했다.

〈China Topix〉지에 따르면, 호주국립대 공학 연구진은 씽잉-볼 모양의 실리콘 나노 입자, 즉 nano bowl(이하 나노-볼)로 구성된 태양열 집열기인 tandem Cell(이하 텐덤-셀) 패널 설계를 마쳤고, 실험 결과 기존 평면 태양열 집열기 보다 20% 앞선다는 결과를 얻었다.

“나노-볼로 구성된 텐덤 셀은 우주항공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한 니라즈 박사는 “이 기술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강력한 친환경 대체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러, 모스크바에 불교사원 들어선다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된 스님들 추모 위해 9월 착공



모스크바 전쟁기념공원 내에 불교사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모스크바에서 올 가을 불교 사원이 착공된다.

〈Moscow Times〉지는 ‘삼보불교센터(Three Jewels Buddhist center)’ 타샤야나(Tathyana) 의장의 말을 인용, “2차 세계대전 당시 모스크바에서 학살된 스님들에게 헌정될 불교사원이 9월 경 일명 모스크바 전쟁기념공원 내 일명 ‘숭배의 언덕(Poklonnaya Gora)’에서 착공된다”고 보도했다.

전쟁기념공원 내 ‘숭배의 언덕’은 러시아정교 등을 비롯해 종교 관련 추모 지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교 관련 추모 영역은 없었다.

티샤야나 의장은 “불교사원 건축과 관련해, 모스크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숭배의 언덕’에서 불교 영역도 할당받았다”며 “이제 러시아 불교계가 힘을 합쳐 불사기금을 조성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Moscow Times〉 지에 따르면 불교사원 건축에는 약 2억 5천만 루블(약 6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종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원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내 몸은 소유물 아닌 관리물

성태를 길러라 ④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방향을 딱 정해 놓으면은 그때는 마 그 사람은 벌써 견성한 거나 한가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언제 되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삼마지 사마타 이걸 갖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은 벌써 범어인데 그러면 이 이름을 전부 외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로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참 아닌 게 아니라 어렵기야 좀 어렵죠. 우리가 중생의 분으로만 봐서 어렵지 법신분으로 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법신이 어디 들어앉아 있습니까? 가죽 주머니, 여기 들어앉아 있지 안 해요? 여기 전부 똥밖에 더 들었어요? 또 느낌도 없는 것. 그러하니 이거를 확실히 말이죠. 이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다 말이여. 이건 내 관리물은 될지언정 내 소유물은 아니다 말이지. 이거를 갖다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람 몸을 갖다 우리가 알려면 의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딱 판명이 되 버리면 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법신자리가 있어. 법신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 내 몸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다 하는 것도 법신자리가 아는 것이지, 이거 자성이 있나요?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마세요. 인제부터는 여러분의 몸뚱이를 여러분이 비록 쓸지언정, 관리를 하면서 쓸지언정,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말이지 여기에 탁 들어앉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버려버리란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걸 버려버리면 묘용의 도리가 없어져. 우리는 말이지 우리의 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묘용의 도리를 갖다가 이 가짜 육신 이 변하는 육신 늙어가는 육신 그야말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를 향해서 가는 이 육신을 걷어잡고 말이지 인생놀이를 할지언정 그런 줄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줄만 알아버리면은 요 삼마지를 어떠한 방법이다. 한 걸 알기가 쉽긴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아버리면은 그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 자리를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 왜 그러느냐. 확인이 될 턱이 없는 겁니다. 만약 확인이 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라도 그건 가짭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그대로 알 따름이지 그걸 갖다 우리가 볼라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뭣이 있어야 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하니 다만 중생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업덩어리 하나, 이거 업의 소산이거든요. 업덩어리. 남자 몸도 나퉈. 여자몸도 나퉈. 재주있는 사람도 나퉈. 재주없는 사람도 나퉈. 이거 업 심부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이지 이것이 내다 해서 말이지 해봤든 결국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 자리만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지어나갈 수 있는 방편을 내 스스로가 작정이 되는 겁니다.

몸뚱이에 탁 들어앉지 마세요.
늙고 변해가는 인간의 육신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를
향해 가는 이 육신을 잡고
인생놀이를 할지언정
그런 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몸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 전부 그겁니다.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내 관리물이라. 그렇다면 이거는 말이지 좋은 줄을 아요 나쁜 것을 아요. 사실로 아닌 게 아니라 말이지. 여기서 내 법신 딱 떠나버리면 흙구덩이 집어넣어도 모르고 불구덩이 집어넣어도 모른 거 아니라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라 말이죠. 화장터 가서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공동묘지 가서 우리가 보거든. 보기는 봐.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렇다면은 참말로 나는 말이지 이 가죽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낸데,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말이죠 지금 말한 삼마지 이것이 말이죠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건 내다 그래서, 이건 내다 생각할 때 이건 그릇된 생각이거든요. 내가 아닌 걸 내라 하니까 이건 그릇된 생각 아니라요? 내다 이래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릇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공부가 설혹 됐다 할지라도 그건 그릇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올바른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견해를 굴려야 되지. 내가 올바른 자리에 앉아도 그릇된 자리에 앉아서 바른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말이지 벌써 그 공부 자체가 올바로 되지 못해. 그런 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삿된 사람이 바른 법을 쓰면은 그 법이 삿되고 또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쓰더라도 그 삿된 법이 발라진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견해를 올바로 가져서 올바로 닦아나가야 되지, 그 머리털만치라도 하나 말이지 그릇된, 다시 말하자면 요새 말로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는 걸 갖다 자기가 합리화 시켜. 아 요거는 요러니 요래야 되겠다.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좋게 해서 자기 안심을 하려고 이러한 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 재주밖에 안됩니다. 참말로 도깨비도 옳은 도깨비가 못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 대로 한 것이 나아. 어떤 기회에 가서 어떤 무엇이 될지언정 그리 해야지, 사견을 세워서 지견을 세워서 아 요러하니 요렇다 또 요러니 요러게 합리화 시켜서 이래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육신분으로 봐서는 서둘러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법신분에 앉을 줄 알면은 우리가 서둘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지 올바른 방편을 그대로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다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는 벌써 이미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러하니 참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은 말이죠 이 올바른 그 방편 윤곽, 이까지 가는 것이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어려우니 그만 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 다 인연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참말로 이 상승설법은 말이죠. 만 명 갖다 놓으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천 명 안 됩니다. 잘하면 한 백 명 이백 명 남고 그렇습니다. 잘 하면. 왜 그러냐. 그건 업 관계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승보살은 뭇사람 위해 자비 베푼다

13-2. 보은게(報恩偈)

은혜를 느낀다는 일이 중요한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보은(報恩)하는 것, 즉 은혜 갚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은 이상 이를 보은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부처님에게 갚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불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후계자로서 대승보살이 되었다. 대승보살(大乘菩薩)이 된 그 자격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은 중생을 건진다는 것, 그러니까 뭇사람을 위해 뭇사람에게 대자대비를 베푼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번번히 일컫는 바 대사회(大社會)의 건설이며 대사회의 사명 의식 대사회의 목적 등을 아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우주, 전 인류를 복지 사회로 이끌어 나아가며 이것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큰 비원을 이른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주를 통틀어 대사회로 볼 때 이러한 대사회에 제가끔의, 개개의 생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친다면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그동안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머니로 하여금 많은 심혈을 자아내게 하는 것일까. 또한 이렇듯 심혈을 자아내다가 드디어 우리가 대생명을 원할 때에는 하늘과 땅이 찢어지는 큰 고통을 느낀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귀중한 생명체가 이윽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갖추어 탄생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우주의 모든 조건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런 것이다.

이를 자연과학의 물리적 현상으로 보더라도 역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다란 생명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원심력의 영향 아래에서 스스로 구심력을 일으키어 우주의 모든 조건이 이리로 집중될 때, 유형 무형의 대사건들이 일어난다. 큰 고통이 든다. 이것을 일컬어 그 생명을 받을 때 큰 고(苦), 괴로움이란 이를테면 커다란 노력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대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대생명을 우리가 받고 각기의 개체가 완전한 생명체를 구성하였을 때는 우주의 모든 사람들은 퍽이나 환희를 느낀다. 지금도 바야흐로 이 귀중한 하나의 생명체가 독립되어 대사회를 위해, 우주를 위해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한 자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큰 환희를 느끼고, 이제까지의 내포한, 그리고 고통을 받던 일이란 이를테면 그 생명체를 완전히 독립시키는데 이르기까지의 홍역을 치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려 커다란 환희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중경(恩重經)에서는 생자망우(生子忘憂)라고 한다. 어머니가 애기를 낳고 나서는 온갖 걱정을 싹 잊어버리고 튼튼한게 얼마나 반가운가 하는 그런 환희를 말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령 우리가 한낱 생명이 있다고 보는 난초 한 포기라거나 꽃밭에 있는 장미 한 그루라거나 심지어 작은 봉선화 같은 화초일지라도 그것이 움이 터 좋

우리는 부처님 사랑받고 불제자 돼
중생구제 원력은 대승보살의 자격
대자대비 베푸는 것은 불법 가르침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자식 돌보듯
이웃도 애틋한 마음갖고 살펴야 돼

은 자리에 심어 두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른다는 것은 흡사 우리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쓴 것을 자신이 삼키고 단 것을 토해서 자식의 입에 넣어, 아끼는 것과 꼭 같은 심정이다. 봉선화 하나라도 잘 가꾸려면 좋은 거름 될 만한 것을 주어 길러 낸다. 소중한 난초 포기를 기를 양이면 또 얼마만한 주의 정성이 드는 것일까. 비료 주는 것이라든지 손을 보아 가꾸는 것이라든지, 벌레가 달라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벌레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약을 친다든지 하여 길러낸다. 이는 흡사히 따뜻한 데 있어서 안 되고, 너무 찬 데 놔두어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노릇과 같아 회건취습(廻乾就濕)이 된다. 진자리에, 오줌 똥 싸서 더러워지고 추하게 한 데는 자신이나 앉고 마른 자리에 깨끗한 좋은 자리에는 아들 딸을 눕히는 것과 같다. 식물이건 사람이건 다를 바 없으며 생명체를 완전히 잘 보육하는 데는 역시 같은 현상이다. 또 유포 양육(乳哺養育)으로 볼진데 난초잎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할 경우엔 이를 말끔히 씻어준다. 잎새에 먼지가 앉았을 때는 뭇으로 쓸어주고 다시 붓을 물에 적셔 닦아주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약물로 씻어준다. 이러는 것이 이를테면 어머니가 애기의 부정을 잘 닦아 내는 것과 같다. 또 애기 젖 먹일 때가 됐는데, 어머니는 이것들이 밥은 어떻게들 먹고 있나, 끼니때가 되었는데 밥을 해 주어야지, 또는 젖을 먹여야지, 기다릴텐데 얼른 가서 배 안 곯도록 해야지 하고 늘 생각한다. 소채를 재배하거나 화분을 가꾸는 데도 철따라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먼 데 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다 원행억념(遠行憶念)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나쁜 짓까지 해서라도 이를 보호한다. 얼른 듣기에는 그럴싸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실상 이런 일은 항상 있다. 안중근 의사 같은 이는 역시 자비와 의리를 아는 분으로 인간성으로 볼 때 선(善)을 지녔었다. 이순신 장군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제 나라를 위해서나,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었다. 안중근 의사로서 볼 때 사람 죽이는 일이 어찌 인간으로 차마 할 일이었으랴. 그렇지만 불행한 조국을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해야만 되었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총으로 쏴 죽였다. 충무공 역시 생명을 아낄 줄 알고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자기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나,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에 반역되는 것은 모조리 죽이고 항복 받고 하였다. 이런 전쟁의 살육은 자비스러운 생각으로 본다면 악업(惡業)이다. 착한 일이라면 하겠지만 어찌 나쁜 일이야 차마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불교인 중에도 그런 축이 더러 있지만 침례교나 성결교 가운데 반전사상을 갖고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살생이므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또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소리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3시 ~ 4시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4시 ~ 5시 30분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부평동)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 : 매주 월요일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재가 신도들의 결집은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



민학기 변호사는 … 1955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민학기 변호사는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조계에 입문해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1998년 변호사 개업 이후 안산시 갑구 선거관리위원장,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제2교구본사 용주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2009년 1월 17일 제2교구 신도회장에 선출됐다.

여름이 한창이던 8월 중순, 경기도 여주 양자산 기슭 주어사지에서는 불자들의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 앞에서 천주교인들을 보호해줬다는 이유로 폐사된 곳을 되살리자며 독려하는 한 불자가 있었다. 바로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60 · 현우)이다.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은 용주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불교계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도맡아 온 열성 불자로 2009년부터 용주사를 비롯한 2교구 지역을 총괄하는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늦깎이 불자, 열과 성을 다해

민 신도회장(법명 현우)은 늦깎이 불자다. 민 신도회장이 불교를 접한 것은 1990년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다. 젊은 시절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원을 지니고 법대에 진학한 민 교구회장은 이후 쌍용건설에서 회사생활로 주경야독을 하다 1986년 사법시험에 도전, 판사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을 거치면서 판사로 활동했지만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 정의나 행복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민 신도회장은 독실한 불교신자인 부장판사를 따라 등산을 하며 마음을 달랬다. 자연스럽게 산사를 찾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교리도 알지 못했고, 불교에 대한 용어도 생소했다. 하지만 불교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

“불교를 접하고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전 기독교계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학창시절 배운 다른 종교는 항상 대립과 갈등 구조인데 반해, 불교는 화합의 구조였어요. 법조계에 일하다 보니 정의와 부정의가 대립하는 구조에 지쳐있던 저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감로수였지요. 사실 우리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처럼 나뉘는 것이 아닌 비빔밥처럼 얽혀 있잖아요.”

민 신도회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절을 찾게 됐다. 반대로 늦은 나이까지 많은 종교를 경험했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앞서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대구지법에 있다 경주로 발령이 났을 때였어요. 우선 급하게 거처를 구하다 보니 한 스님의 토굴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것이 또다른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 스님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장례절차를 불교식으로 하게 되며 온 집안이 불자집안이 됐죠.”

여생 불교 가르침 실천하며 살 것

이후 1998년 수원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민 신도회장은 본격적으로 교리공부에 매진했다. “불교를 알아가다 보니 스스로 교리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민 신도회장은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익혔다. 〈법화경〉, 〈금강경〉, 〈아함경〉, 〈수심결〉 등 불교 교리 강의를 하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이와 함께 수원 지역 법조인들로 구성된 수원법조불자회에서도 매달 모임을 갖고 불교 공부를 했다.

이를 계기로 사찰의 법률 고문도 맡았다. 2007년부터 용주사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찰의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도맡아 해결했다.

이후 민 신도회장은 인생의 남은 시간은 불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원을 세웠다.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죽비를 가져다 놓고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수행에도 매진했다. 바쁜 변호사 업무 속에도 틈나는 대로 절을 하며 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조인 활동을 하며 심란한 마음이 일어날때면 절을한다”는 민 신도회장은 차분히 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민 신도회장은 매년 평창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3보1배 정진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1990년대 판사 재직시 불교 접해
법조인 스터디모임하며 사찰 법률자문
2009년 2교구 총회서 신도회장 선출
교구신도회 활성화 최전선에서 활약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등 행사 이끌어
“지역 공동 이슈 있어야 신도 결속”
최근 여주 주어사 복원 과제도 제시
교구 40여 사찰 릴레이 법회 개최

“신도활동에 스님들 거부감 없어야”
자성과 쇄신에 대한 재가자 동참 강조
사무실에 죽비 놓고 마음 다잡아
3보1배로 심란한 마음 다스리기도

민 신도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 구절은 〈금강경〉에 있는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구절이다. 상에 집착하면 그로 인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항상된 불변의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지켜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지요.”

교구신도회 활성화에 불교 미래 달려

민 신도회장이 신도회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2009년이다. 당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의 추천으로 2009년 1월 지역교구에서는 최초로 교구신도회장으로 선출됐다.

민 신도회장은 불교의 미래가 교구신도회 활성화에 있다고 단언했다. 각 사찰 신도회가 주도적으로 교구를 구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교구신도회가 사찰이 하지 못하는 불사를 맡고, 또 이러한 힘이 중앙신도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장직도 각 사찰 신도회장이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교구의 경우 84개 사찰 중에 절반 이상 대의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45개 사찰이 참여해 선출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교구신도회에 힘이 실립니다. 사찰신도회에서 자신들이 구성한 교구신도회 활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할 최후의 보루죠.”

불교계에서는 교구신도회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특히 일반 불자들이 지역불교계의 현안보다, 개인의 기도나 제적사찰의 불사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신도회장은 “불교계는 행사를 하면 그 것으로 끝이다”며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행사에 활용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는 다른 신도회에 보내져, 제4교구 신도회 창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민 신도회장은 2교구 신도회의 노력으로 불교계에 일어난 변화도 예로 들었다.

“첫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를 했을 때입니다. 당시 2교구 임원회의에서는 첫 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찰들에서 2~30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는 버스 3대를 동원해 120명이 참여했어요. 막상 가보니 다른 교구에서는 응원에는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되겠어서 저희만이라도 앰프, 사물 등 가져온 응원도구로 신명나게 응원했습니다. 2년차가 되니 저희의 응원이 입소문이 난 겁니다. 월정사, 동화사, 화엄사, 신흥사 등에서도 활발한 응원을 펼쳤습니다.”

민 신도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불교계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자신의 원찰에서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불교계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환희심을 내고,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어사 문제, 교구신도회 활용 이슈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 활성을 위해서는 먼저 교구 내의 공동의 이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신도회는 활동거리가 없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자신의 원찰에서 신도활동하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이죠. 또 교구신도회 임원들도 각 사찰의 임원을 맡고 있어 교구신도회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교구신도회는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구신도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슈가 있어야 합니다.”

또 민 신도회장은 이러한 이슈 형성은 교구신도회만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어사 복원 문제가 바로 이런 이슈에 속합니다.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한지달력


상호인쇄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불교 지키는 큰 바탕”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가 주축이된 주어사 복원을 위한 기도 법회 장면. 민학기 교구신도회장을 비롯해 용주사 · 수원사 등 지역사찰에서 불자들이 참여해 릴레이로 법회를 열고있다.



2010년 수원용주사에서 열린 교구신도회활성화 세미나 모습. 제일 오른쪽이 민학기 교구신도회장



2009년 열린 제11회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 활발한 응원을 펼치는 제2교구 소속응원단의 모습

주어사는 작아도 사회적 의미는 큽니다. 스님들이 천주교를 보호하다 폐사된 곳을 천주교 측에서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다니요. 인근에 여주 신륵사가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교구신도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본격화되면 중앙신도회까지 확장시켜야겠지요.”

민 신도회장의 생각은 적중했다. 주어사지 문제에는 용주사, 수원사, 신륵사 등 40여개 사찰이 릴레이로 기도법회를 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도법회를 통해 신도들의 결속력이 강화된 효과도 얻었다.

“이웃종교계에는 이러한 이슈가 정기적으로 마련됩니다. 수원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2만 명이 갖춰지면 대관을 해줍니다. 그 축구장을 매년 단일 교회 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열려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 신도들의 활동력이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2교구에서도 가족운동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러한 체육대회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 좌초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죠.”

민 신도회장은 신도들과 사찰이 감당 가능한 수준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힘이 결국 불교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이슈로 신도들이 기도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출재가 모두 열린 자세 갖췄으면

민 신도회장은 이러한 신도들의 단체활동에 대해 개별 사찰 측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음도 지적했다.

“대형 운동회나 사찰순례법회를 하면 개별사찰, 스님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찰에서 활발히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절 신도들이 그리로 도망간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함께 모여 방생법회 등을 해 환희심을 돋구면 좋은데 개별 사찰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구신도회의 과제는 이슈 선정과 함께 활동적인 사찰 외에 다른 사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겠죠.”

이와 함께 민 신도회장은 재가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를 꾸려가며 가장 힘들었던 점이 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해당 사찰 신도들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어떤 신도들은 교구신도회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지 스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사찰 스님들에게 예속돼있어요. 스님들에게 자성과 쇄신을 얘기하지만 재가자들에게도 자성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불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민 신도회장은 또 “열정을 가진 재가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신도회장은 어떤 사찰의 경우 재가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조차 없다며 쉼터 마련 등 이러한 세세한 배려를 통해 사찰을 찾는 이들을 불자로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특히 직장에 은퇴한 60대 이후 세대들의 경우 소임을 맡기를 원하기에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는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는 조기에 하는 시대죠. 보통 6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데 90세까지는 삽니다. 그 30년의 기간을 종교가 메워줘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받아들을 자세가 불교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들이 사찰로 왔을 때, 기도객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찰 내의 일정 수준의 역할이 주어지는 그 무엇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연꽃 같은 스님들

“자~ 스님들, 요기 보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면서 웃으세요.”

인상 좋은 사진사의 말에 21명의 스님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청암사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2년간 사회복지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다.

2012년 2월 절 밖 출입이 제한된 스님들이 승복 위에 사립대 학사모를 썼다. 학인들이 일반 대학에서 단체로 위탁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건 우리나라 승가대학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주지 스님, 이제 학인 스님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현재의 승가대 4년 교육과정 속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과 과정을 연결하면 사회복지 활동이 증가하는 시대에 스님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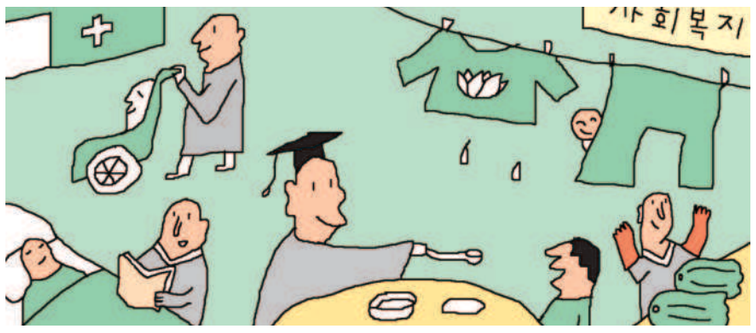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김천에 있는 청암사 승가대학, 이곳은 천년고찰의 이미지와 다르게 2010년부터 전자수업 강의를 진행하면서 청암사 참살이라는 앱을 개발해 전통 사찰음식의 조리법과 명상법, 발우공양, 사찰예절법, 태극권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젊은 스님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적극 받아들이고 사찰의 문턱을 낮추어 대중들 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스님들이 자격증을 갖고 직접 복지활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마하이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스리랑카 출신 산뜨시리 스님의 영향이 있었다. 개인적인 시간 없이 24시간 이주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휴대폰을 켜두고 생활하는 외국인 스님의 효율성이 보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2년간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어렵게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그 결과 자신있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자원을 연결해 주는 등 이주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게 됨으로써 자격증이 있고 없음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이 아쉬웠다. 당시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스님의 생각도 비슷했다. 특히 활동 폭이 좁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매 주 절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혁신적인 선택이었다.

“말씀대로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래서 불교사회복지사 스님을 양성하는 일이 좋다고 봅니다. 불교가 잘되려면 지금부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먼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결정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스님들의 통학을 위해 학교에서는 버스를 보내주었고, 학인들은 배움의 기쁨을 얻어 갔다. 나는 2년 동안 매 학기 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업을 맡아 진행했다. 진지한 눈빛으로 스님들은 강의를 들었다. 이십대와 사십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사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해석하는데 대부분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고 한다. 하지만 나는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며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고 한 글자를 바꾸었다. ‘~하며’ 와 ‘~하고’ 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깨달음’ 과 ‘구제’ 가 동시에 굴러가야 온전한 보살행이 된다.

지난 해 11월에는 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지역의 중증장애인 시설장으로 부임했다. 만일 학인들에게 사회복지의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복지 사업이 다가 왔을 때 자격이 없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올 해도 제2기로 비구니 스님 18분이 재학 중이다. 노 스님의 선택은 이처럼 후학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부 속에 한국불교의 앞날을 준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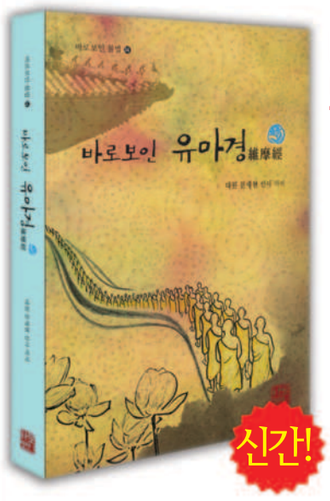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7권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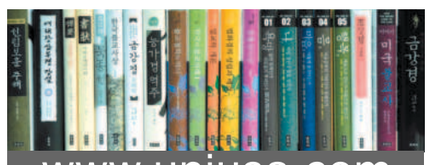
www.zenparadise.com 참조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3 ~ 9/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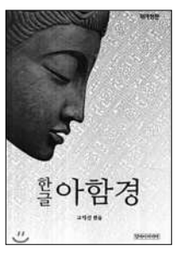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수트라(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5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6	법성게 강해	김상백	운주사
7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8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참글세상
9	오도에서 열반까지	진옹월성	사유수
10	아함경 (전12권)	학담	한길사



붓다 사유체계 따라 원문 그대로 옮겨

한글 아함경

고익진 편 | 담마아카데미 펴냄 | 3만원



故 고익진 교수가 한국불교학계에 남긴 업적은 눈부시다. 가장 큰 업적은 당시만 해도 불모지였던 초기불교학 연구에 불을 당긴 것이다. 의대에 재학중이던 그는 불교계에 입문한 이후 1970년대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라는 석사논문을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런 고 교수는 1974년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80년대에는 동국대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을 맡아 한국불교 관련 문헌을 시대순과 저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한국불교학 연구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1981년 한길로 가는 보살회란 의미가 담긴 '일승보살회' 를 창립해 일상속 신행생활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 교수는 비록 떠났지만 일승보살회는 30년이 흐른 아직도 정기법회와 수행을 계속하며 그가 남긴 창립 정신을 충실히 계승 중이다.

이런 고익진(1934~1988) 前 동국대 교수가 생전에 남긴 큰 업적인 대표작인 〈한글 아함경〉이 새로 개편돼 나왔다. 1981년 첫 출간된 이 책은 당시만 해도 한국불교학 연구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아함경은 소승경전으로 치부되던 때였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소승불교라 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일찍이 19세기부터 서양 불교학계에서는 팔리어 '니카야' 를 번역하고 연구했다. 오랫동안 아함경 연구를 지속한 고 교수가 깨달은 것은 대승불교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함경이란 사실이었다. 생소했던 아함경을 주목받게 만든 고 교수의 이 책이 발간된 뒤부터 불교계에 아함경 연구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이때부터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 교수는 생전에 한국불교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아함경은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 살던 사캬무니 붓다가 45년간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비유나 우화가 많이 등장하고 대화체로 써 있어 읽기 쉬워 보이지만, 내용은 삶의 조건과 질곡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해결책 등을 말하고 있어 무겁다. 그러나 붓다가 제자의 특성에 맞춰 난이도를 달리해 묻고 답한 것이므로 그 입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색해 가는 방식으로 읽으면 무리가 없다.

책은 생로병사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고통이라고 본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것의 소멸, 즉 열반이라는 상태가 있다. 또 거기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라고 한다. 고통으로서의 삶이 열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는 원인을 가지고 상관하는 관계,

1981년 첫 출간 후 재개정판 펴내
글자크기 흐름에 맞게 재구성해 편집
왜곡 소지 용어는 한문으로 사용

즉 연기(緣起)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저것'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 도 소멸한다는 것을 알면 번뇌와 괴로움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은 붓다가 새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실로서, 그는 지혜나 눈이 있는 자는 다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진리는 경험으로 증험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신앙이나 능력을 가진 자만 알 수 있다면 이미 보편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함경에는 붓다의 사상과 삶의 이야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 교단의 모습, 즉 수행자의 공동체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재개정판은 고 교수가 창립했던 수행모임인 일승보살회 회원들이 맡았다. 이들은 글자 크기와 배열을 현대의 흐름에 맞게 재편집해 우선 가독력을 늘렸다. 내용도 한글로 번역했을때 의미나 왜곡될 소지가 있는 용어는 그대로 한문을 사용했다. 한문본 및 팔리어본 등과 일일히 대조해 바로잡는 꼼꼼하고 어려운 작업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편찬 작업이 또다른 수행이라 여기며 묵묵히 고 교수의 향훈을 지켜내려는 일승회 회원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치 부처님이 옆에서 설법을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붓다의 사유 체계에 따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 책은 그래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고 교수는 우리곁을 떠났지만 그가 몸소 남긴 가르침을 실천행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바로 이 책 속에 그의 진한 땀방울이 살아숨쉬기 때문이 아닐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캔버스에 펼쳐진 그림일기… 힐링 글 그림 200여개

사랑이 온다

이영철 지음 | 해조음 펴냄 | 1만5천원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없듯 밝음이 없으면 어두움도 없듯/ 성공이 없으면 실패도 없듯 가지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듯/오지 않으면 갈 일도 없듯 눈물이 없으면 웃음도 없고/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것을 결국 나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이 찾아오면 도망치거나 소리 질러 내쫓지 않고/ 함께 차도 한 잔 마시고 창을 열고 하늘도 보여준다/같이 노래도 듣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친구로 대해준다."

혜민 스님의 베스트셀러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삽화를 그렸던 이영철 화가가 펴낸 그림일기다. 이번엔 입장이 뒤바뀌었다. 혜민 스님이 추천사를 한국어와 영어로 써주었다.

혜민 스님은 "우리가 이 화백의 그림을 보고 행복한 이유는 따듯한 그림들, 특히 봄을 계속 그려나가고 싶다는 그의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그린 꽃은 시들지 않고, 그린 봄날은 떠나지 않을 것이란 그의 이유가 너무 멋집니다. 이영철 화백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그리움, 사랑, 꿈, 희망은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꽃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고 평했다. 〈사랑이 온다〉의 저자 이영철 화가는 삶의 작고 낮은 곳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적 언어로 그리고 쓰는 작가다.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그림을 보며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책 장 어느 곳을 펼쳐도 아름다운 그림과 편지 같은 글을 만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저자 고유의 감성이 가득 담긴 순수하고 동심어린 그림과 사랑과 희망, 용서와 배려, 용기와 화해를 담은 치유의 글이 만나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준다.

이 화가 특유의 독특한 화법을 캔버스에 펼친 그림 177점과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잠언글 형식의 편지 140편이 실려 있다.

그림 속에 담긴 사랑 및 동심과 가파른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시적 형식에 기댄 함축적 글들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찾게 해준다.

그동안 저자가 그려온 자연과 동심, 인간의 순수 원형들이 고스란히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밝고 아름다운 그림 속에 조용히 숨쉬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애정 넘치는 암호를 발견하면 저절로 사랑이 오고 행복해지는 마법에 걸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대의 꽃바다, 이영철 作

마음속에 고요한 잔잔함을 불러일으켜 주는 이 책을 읽고나면 마음을 열고 긍정과 배려로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 동화나 마법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순수한 감성을 깨달음의 지혜로…

아아, 샛노랑 잎새들이 젖고 있다

-정석영 시와 월인천강론

정석영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암자는 구름을 이고 조는 듯 한가롭고 / 갈빛은 날로 고와 번져가는 노을인데 / 뽀르르 다람쥐 한 마리 놀다 간 빈 뜨락 // 부처님 닮으신 스님 부처님처럼 앉았다가 / 착한 아기 왔다면서 주시는 머루 한 송이 / 까아만 알알에 서린 전설 같은 산내음" 〈절간〉

1994년에 〈한국서정시순례〉를 발표했던 저자가 20년 만에 내놓은 시집이다. 오랜 시간만큼이나 농축된 그의 내면세계를 시어 하나하나에 정성껏 담아냈다. 순수한 감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의 시 속에는 시인으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 세상과 자연, 일상을 바라보는 순수하고 맑은 시선이 행간 가득하다. 때문에 그의 시를 읽노라면 시인의 시선이, 시인의 느낌과 감성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마치 푸른 하늘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고, 맑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고요한 오솔길을 걷는 듯하고, 산과 나무, 구름이 손에 잡힐 것만 같다.

가슴 깊은 곳에 여운이 남고, 마음에 울림을 남기는 그의 시를 통해, 맑은 향기를 맡은 듯 영혼이 정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순수한 감성은 시를 통해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진다. 시 한 편 한 편이 깨달음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책의 6부에서 부휴선사와 서산대사 등 저자가 가려 뽑아 번역한 선시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시뿐만 아니라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이들의 정신세계와 감성을 엿보게 해준다.

"시는 문학의 정수이자 예술의 꽃입니다. 슬픔도 빚어내면 아름다움으로 승화하고 눈물도 다독이면 보배구슬로 꿰어집니다. 꽃은 늘 보아도 아름답고 시는 오래 새길수록 맛이 나고 그윽히 향기가 짙어집니다. 그것은 시만이 지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번 시집은 인류의 삶에서 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퇴화하는 인간의 감성과 인간성을 걱정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저 많이 배워 많이 알고 많이 모아 많이 가지는 게 교육의 성과이고, 인생이 목표가 되어버렸고, 스스로 가슴으로 느끼고 새겨야 할 시를 이론적인 학습과 논리적인 분석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그릇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시가 시의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적 환경을 걱정하는 시집이다.

인류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모임 '월인천강회' 의 회장인 저자는 시의 기능이 회복돼야 교육이 살아나고 인간이 살아나 상생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성숙과 자아완성의 도를 이룩하여 만유 위에 우뚝이 절대아(絕對我)로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시의 기능회복을 위해 책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일목요연하게 새겨 읽고 넘어갈 수 있게끔 두 쪽 이하의 시에 한해서는 펼쳐진 양면에 올렸다. 저자는 "백편의 시를 외우기보다 열편의 시를 읽는 게 낫고, 열편의 시를 읽기보다는 한편의 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게 열 번 낫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인 7부에서 월인천강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월인천강론은 둘이 아닌 시와 선을 통해 인류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자는 교육론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저자 **정석영**은 … 인류교육의 새 지평 월인천강회 회장이다. 1977년 아동문예지로 출발해서 시와 동시, 선시를 써왔으며, 한국동시문학상(1978년), 한국불교아동문학상(1992년) 등을 수상했다. 1944년에는 〈한국서정시순례-전5권, 깊은 샘〉을 펴냈다. 월인천강회는 한국서정시연구회와 대한미래교육학회가 합쳐진 단체로, 올바른 교육과 종교의 기능을 살려내어 인간성숙의 길과 자아완성의 도로써 겨레와 인류의 영원무궁한 행복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모임이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교의 맛과 멋 카툰으로 즐겨요

'만만한 뉴스' 어라·배종훈·김동범·양경수 작가의 '만두전'

아기 부처님이 관수를 하는 장면은 언뜻 보면 귀엽기만 한 카툰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은 깨끗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심오함이 담겨 있다. 또한 천안제일 아나율은 근사한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안내견을 끄는 신사로 등장하고, 바다를 낀 암자는 짙은 어둠속에서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계의 초월을 보여준다. 여기에 각 나라의 다양한 스님의 모습이 어라라는 캐릭터로 새롭게 탄생하니 빙긋이 미소가 지어진다.

카툰으로 불교를 알려온 만만한 뉴스가 봉녕사 사찰음식 축제를 찾아간다. '만.두(귄-.DOO)전(展)-맛있는 불교' 가 9월 17일~10월 4일 수원 봉녕사 소요삼장 1층에서 열린다. 만만한 뉴스 어라, 배종훈, 김동범, 양경수 작가의 각각 다른 개성을 보여줄 이번 전시는 제6차 봉녕사 세계사찰음식 대향연에 맞추어 진행되는 만큼 맛있는 만두처럼 다양한 카툰으로 불교를 맛보고 즐기게 해줄 예정이다.

만만한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그야말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다양한 재료로 만든 소를 담듯 부처님의 말씀을 작가별 특색에 맞는 그림으로 담아 내놓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마다 각각 다른 주제를 정해 작품을 전시 개성 있는 불교 작품을 보여줄 것"이라고 귀띔한다.

이번 전시에서 지찬 스님은 어라의 '힘내어라' 라는 주제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작품을, 김동범 작가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마음을 담은 카툰작품을 모은 '햇살' 코너를 선보인다. 또한 양경수 작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이 시대의 영웅으로 재해석한 '히어로즈' 시리즈를, 그리고 배종훈 작가는 '하얀 마음에 담은 절집' 이라는 제목으로 운주사, 마곡사, 상원사 등의 아름다운 사찰을 나름의 색깔로 표현한 드로잉으로 선보인다.

지찬 스님은 "만만한 뉴스 창간 이후,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기존의 어라 캐릭터를 통해 선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양경수 작가는 "불교 안의 영웅들을 찾아다니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10대 제자 역시 천명이 넘는 부처님 제자 중에 선정된 10명이니 영웅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적 캐릭터의 꽃미남으로 표현해 젊은층들이 좀더 쉽게 10대 제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양 작가는 사찰 전시인 만큼 꽃미남 10대 제자를 족자로 표구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꽃미남으로 재탄생한 10대 제자 등
각각 다른 개성의 작품으로 표현
봉녕사서 9월 17일~10월 4일



만만한 뉴스가 '만.두(귄-.DOO)전-맛있는 불교' 전을 9월 17일~10월 4일 수원 봉녕사 소요삼장 1층에서 연다. 작품은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지찬 스님의 '각국 어라', 배종훈 작가의 '달 둘, 절 하나', 양경수 작가의 '십대제자(THE TEN-Part.)' 김동범 작가의 '목욕제계'

김동범 작가는 "관수, 고행, 물소를 타고 가는 동자승 등을 통해 햇살 같은 존재의 부처님을 표현하고자 했다. 의미 전달보다는 선이 없는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존재를 볕으로 쬐는 듯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배종훈 작가는 사찰에서 지낸 하룻밤을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배 작가는 "이번에 작품 중 '달 둘 절 하나' 는 간월암을 배경으로 바다에 달이 비친 풍경을 담아냈다. 어둠이 짙은 암자는 바다인지 하늘인지 알 수 없으니 경계가 없는 불이의 세계를 말하고자 했다. 다른 작품들도 사찰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휴식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전한다. 특히, 배 작가는 이번 출품작 중 3 점을 10월 2일~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aaf2014' 에도 선보여 한국의 선적 이미지를 유럽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별 대표작품을 커피원두자루를 재활용한 에코백과 캐릭터가 들어간 핸드폰케이스 등의 아트상품으로도 전시 판매한다. 또 만만한 뉴스에 '템플라이프' 로 연재를 하고 있는 김근아 객원작가가 선보이는 수제 양갱도 소량 판매 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초조대장경 판본 4건 보물 지정 예고

역경·간행 과정 담은 가치 지녀

고려 초조대장경 판본 4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월4일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佛頂最勝陀羅尼經)' 을 비롯한 초조본 4건과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1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101년) 거란 침입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팔공사 부인사에 보관되어왔지만 모두 소실돼 현재 판본만이 전해진다.

이번에 지정된 초조대장경 판본 중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初雕本 佛頂最勝陀羅尼經)' 과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初雕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 은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 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초조대장경 판본 불정최승다라니경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은 권말(卷末)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 역경과 관련된 참여자 명단 등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 와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卷四)' 는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선종 4) 이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는 공신의 녹훈(錄勳)을 파악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전각반 첫 회원전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전각반 첫 번째 회원전 '영취산에 돌꽃 피다' 가 9월 17일~10월 12일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의 작품 20여점과 실인(實印)을 함께 전시한다. 작품에는 무념위종(無念爲宗), 상수불학(常隨不學), 세계일화(世界一花) 등 불교관련 구절과 한시(漢詩)의 유명한 구절이나 효(孝)에 관한 작품 등 다양한 내용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이수예 불화전… 9월 17일~23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서

젊은 불화가 이수예의 개인전이 9월 17일~23일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673년 조성된 장곡사 괘불의 상단 모사도와 조선 후기 괘불의 걸작 미황사 괘불 모사 등의 대작들을 선보인다. 특히 미황사 괘불은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우수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지장시왕도, 화엄신중도 등 불교회화의 대표적인 불화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지장천불도와 대흥사의 진영 3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이수예 작가의 '영산회상도'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이 던진 화두는?'

불교평론 9월 18일 열린논단서 교황방한 문제 다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9월 18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이창익 한임대 생사학연구단 HK교수를 초청해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이 한국종교계에 던진 화두' 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불교평론 측은 "지난 여름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한 교황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100시간에 불과했지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며 "대형 종교단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과 함께 광화문에서의 시복식 등 화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한국종교계와 한국불교의 경우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익 박사는

이번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이창익 박사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종교학자다.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와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림대 생사학연구단 HK연구교수로 있으며 주로 종교현상에 대한 분석적인 글을 써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사연구' 여름·가을호 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2014년 여름·가을호를 발간했다.

여름·가을호에는 △고운기 한양대 교수의 '권상로와 삼국유사' 기획논문을 시작으로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육당 최남선의 삼국유사 인식과 〈삼국유사 해제〉' △김성주 동국대 교수의 '무애 양주동의 〈삼국유사〉 향가 인식' △동국대 혜인 스님의 '인도 세친 〈아비달마구사론〉의 지각이론 연구' △고상현 박사의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강화방안 연구'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접합점은?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3집 발간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제3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은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만남' 과 '만해의 심우장 세계' 2개 주제 특집으로 구성돼 있으며 논문으로 △지미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고려 수월관음도의 대나무 도상에 관한 고찰' △조정육 미술평론가의 '단원 김홍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 미학의 세계'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추사의 세한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진철문 동국대 강의교수의 '장욱진의 그림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의 '일제강점기 후반 불교계의 동향과 한용운의 불교사상' △김성연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의 '1930년대 한용운의 불교개혁론과 민족의식 고취'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의 '1930년대의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 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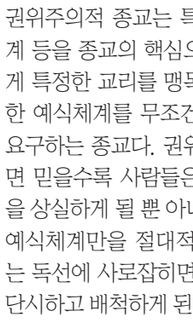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三毒'에 빠져있는 현대사회 향한 경종

불교로 읽는 古典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문명(文名)을 떨쳤던 철학자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프롬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던 사상가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에리히 프롬이란 사상가의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작 에리히 프롬이 불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불교의 명상법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사상가를 제외하고는 서양의 철학자들 대부분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사상을 경시하거나 그것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불교에 대한 프롬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높은 평가는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리히 프롬과 불교

프롬은 종교를 권위주의적인 종교와 인본주의적 종교로 나누면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가장 훌륭한 전형으로 불교를 뽑았다. 권위주의적 종교는 특정한 교리나 예식체계 등을 종교의 핵심으로 보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특정한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다. 권위주의적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나 예식체계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독선에 사로잡히면서 다른 종교들을 이단시하고 배척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인본주의적 종교는 종교의 핵심을 이성과 사랑과 같이 인간에게 원래 존재하는 훌륭한 잠재능력을 온전히 개화시키는 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이념에 충실할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한 지혜를 더욱 성숙시키게 되며 모든 생명과 사물에 대해서 공감과 애정을 갖게 된다.

프롬은 불교를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우상파괴적인 종교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보았다. 불교는 한편으로 자신의 교리나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만약에 깨달음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폐기되어도 좋다고 본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우상파괴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는 종교의 목표를 오직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미 존재하는 불성을 온전히 개화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프롬은 기독교에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인본주의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예수가 하느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같은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종교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는 하느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느님으로 보면서 하느님에 다가가는 참된 길을 다른 인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불교에 대한 프롬의 높은 평가는 선불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선(禪)은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가장 세련된 반(反)이데올로기적이고 이성적인 체계이며, 그것은 '비종교적' 종교('nonreligious' religion)를 발전시키고 있다. 선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비종교적' 종교라는 것은 선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이 인격신이나 특정한 교리와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롬은 불교야말로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종교이며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비화나 계시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롬이 불교에 접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0세 때였다. 이 당시 프롬은 게오르크 그림(Georg Grimm)의 〈부처의 가르침. 이성의 종교(Die Lehre des Buddhismus)〉와 〈불교학(Die Wissenschaft des Buddhismus)〉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 난 후 불교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프롬은 원래 정통파 유태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탈무드 학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정통적인 유태교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된다. 프롬이 이렇게 유태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그 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불교와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다. 그는 〈소유냐 존재냐〉 등의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소외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매일 명상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
"禪은 가장 이성적인 체계" 평가
인본주의 종교 전형 '불교' 뽑아

대표 저서 〈소유냐 존재냐〉 통해
현대사회 '소유지향' 신랄히 비판
"존재지향적 삶, 병폐 해결" 강조

불교에 대한 프롬의 관심과 애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데 그치지 않았다. 프롬은 매일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명상을 했다. 프롬은 1975년에 자신의 75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전혀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두 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다. 사람들이 프롬에게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자신이 그날 아침 2시간 동안 호흡과 명상을 했다고 대답했다.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 삶

프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냐 존재냐〉는 불교사상이 프롬의 사상에 미친 깊은 영향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소유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존재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 책이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현대인들을 규정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 삶의 의미를 보다 많은 물질의 소유와 쾌락의 향유에서 찾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 상호 간의 분열과 인간과 자연의 분열 그리고 인간의 자기분열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물질과 쾌락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야기하며, 자연을 한낱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서 취급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인간을 물질과 쾌락에 대한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정작 이렇게 무한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신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분열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 지배될수록 인간은 물질과 쾌락을 즐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에 예속되는 노예가 된다. 이렇게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근본적인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만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공허감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프롬은 이러한 공허함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자들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것들과 교감을 나누는 삶이다. 이러한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인 지혜와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성장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다.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입각한 삶이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라는 삼독(三毒)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빠져 있는 인간은 물질과 쾌락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편, 그러한 탐욕은 항상 원하는 대로 즉시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에 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물질과 쾌락이라는 덧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불교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로서 거론하고 있는 것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과제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서로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자기 자신의 현 상태에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하게 '존재'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소유욕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나 적의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진정한 연대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만 인간은 내적으로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축하고 착취하는 데서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갖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정교한 기계와 상품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자신이 모든 생명체와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공생하도록 힘쓴다.

셋째로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한다. '지금 여기'에 펼쳐 있는 세계와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인간과 사물에서 경이를 느끼면서 그것들에 자신을 온전히 열고 그것들과 교감을 나눈다.

넷째로 인간의 사악함과 파괴성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다섯째로 자기 이외의 어떠한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지도 않는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장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일곱째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은 없다. 그와 같은 야심도 탐욕과 소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운명에 맡기고 성장하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프롬과 불교의 대화

프롬은 철학자일 뿐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창조적으로 변용 계승하면서 정신분석학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한 정신분석학자였고 정신치료를 직접 수행했던 정신분석의(精神分析醫)이기도 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들과 현대사회의 병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독서와 사랑, 대화, 권위, 종교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프롬의 이러한 분석은 불교의 통찰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언젠가 프롬의 사상과 불교를 비교하면서 프롬과 불교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를 매개해 볼 생각으로 있다.

소유양식보다는 존재양식을 주창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던 프롬은 그 자신 진정으로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독일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던 〈사랑의 기술〉의 인세로 프롬은 보잘 것 없는 액수의 돈밖에 받지 못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프롬은 오전 시간을 연구와 사색을 위한 신성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오전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철학마저도 하나의 지적인 분석 작업으로 전락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지행(知行)이 합일된 사람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프롬은 언행이 일치했던 극소수의 사상가들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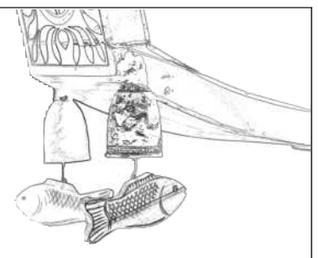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큰 이익이 있을 것이요, 공부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른다면 무슨 상심할 일이 있겠느냐.

- 자경문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9909-0602

각종비법 지도
재택수업 가능
사암, 포교원 종도등록
창종 14년
저서 100여권. 동방진인
각종 비서와 단자보급
02)907-5858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지역)
010-5269-9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장례식장 염불. 49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금 50만원. 불전소유
장례시 염불은 20만원
독경할 스님 1분 초청
신분증, 주민등록사진
보증금 2천만원, 1년계약
070-8849-3011
사회적 상부상조 협업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수련생 수시모집
- 건강,의료치료기공사(3-6개월)
- 손빛 氣치료
010-4611-1296
- (역학강좌) 운기명리학,점술 등
- 역학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무료제공
010-8477-7952
다음카페 : 일묘심 약사선원
네이버카페 : 묘심기공
1호선 지하철 신설동역 11번출구 직진 100m

최 면 공 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
주1~2회, 총10주 이상, 100만원
*내용 : 의학최면 중점
공부중 정신, 에너지, 영혼,
신마음, 의식, 무의식, 업,
귀신, 자아, 기 신령 등
여러 이름을 이해하게 됨
010-9609-1919
덕인 합장

지리산 청학동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천도재 20만원,
제사 20만원,
49재(77재) 140만원
천도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010-8412-7623
문수암

산새가 울고 물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수정사에서 암투병 환자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모십니다
제사한 사항은
031)333-5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

불심이 깊은
독신자 60대
주지 보살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과 여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도법 : 사주비술 : 현공풍수 : 천신기 전수
역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은데 왜? 도사는 나오지 않는가 누구한테 배우면 금전과 시간낭비 스승을 만나는 것 쉽지 않다.
신명같이 운명 예측가능하면 초염력역학 풍수 도사가 되느니라.
■ 개강 : 2014년 9월 13일(토)(일) 주간, 야간반 13시 ~ 20시까지
■ 종합개인지도. 수시모집 (4개월 과정)
■ (1) 사주, 작명, 래정장자비술 (2) 현공풍수, 수맥, 명당찾는법
(3) 빙의, 영가천도, 기받는법, 치유법 (4) 전통활기법(통증, 난치병완쾌)
장소 : 서울 전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혜민병원 뒷길
약 400m 사거리 국민은행 가기전 24편의점 뒷집 대흥사
대흥사 : 02)447-3789. 010-6350-3789
* 도사나 도인이 되실 분, 배우러 오시라요.

강원도 바다가
보이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같이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650-5852

스님이 없는 절이나
포교당 원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공양주도 구해 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어려운 절만)
010-4882-3838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권 선 문
지장도량에 명부전 건립과 지장보살님, 십대왕 조성불사에 시주 설판이나 화주하여 주시는 분께 10여분 큰스님 작품 2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뜻 깊은 이번 대작불사에 지극한 정성과 큰 자비심으로 도와주시면 평생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큰 인연으로 무량복덕을 지으시고 생사고행을 벗어나서 성불하십시오.
연락처 : 경북 안동 덕왕사 054)853-3855. 010-9890-1237
계좌번호 :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입니다.
기도 중에 전화 연락이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원각 합장

지월 법사의
사 주 학 강 의
사주상담의 전문가 시대를 선언!
지월법사의 옥문관 사주학 강좌
신강신약론과 격국용신론 신살론의 뿌리를
뒤엎은 옥문관사주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사주학. 격국용신론
10년, 20년을 해도 아리송한 사주학을
붙들고 지낼 것인가?
조상타령 귀신타령 빙의타령하는 사주학이 사주학인가?
사주를 보고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주학입니다.
교재 "운명그물음에 답하다." 사주학과 운명 상담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출구
010-2395-0472 지월 최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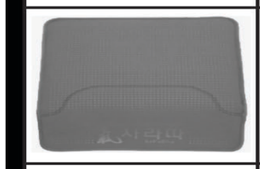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귀의할 곳을 만들어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 혜로워져라.
마음의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다가서지 못한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지하철 1분거리내 사찰
- 위치 : 부산
- 총부지 : 207평
- 건평 : 100평 법당,요사채,방7개
- 땅일부 상업지
- 3억 3천인수 (은행 : 3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 위치 : 부산 금정구 • 대지 : 1,000평
- 건물 : 법당, 용왕당, 노상부처님 요사채, 방6개.. 주차장
- 몽땅 : 1억 7천(스님 사정으로..)

※필히 방문 상담, 전화상담요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초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지적 4,460평 종교부지 838평, 전 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들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광진 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대전
◎ 부지 : 300평 ◎ 부지 : 60평
◎ 인법당 : 3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차량진입, 공원지역
◎ 양도가 : 6억원 ◎ 양도가 : 3억 5천만원

※ 40년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10-4586-4525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원주 도심 부근 좋은 위치 사찰
* 목조단청법당 80㎡ 목조요사 150㎡ 산신각등
* 토지8 50㎡ 주자창과 교통 편리한 남향사찰
* 금액 : 6억 3천만(융자있음). 실인수가 4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가정법원 등기소 전철역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거리 1분에서 10분거리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건평 40평(도심속 한옥사찰)
- 시설최고, 15년째 법회 봉행중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9천만원(보) /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278-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전철역에서 5분거리 교통 정말 편리합니다
- 평수 : 107㎡ (32평)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 및 비품은 상담후 조정
-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32)881-1935

사찰불사로(급)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5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 /010-8518-55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 약 30분, 도심속의 포교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마을지나 산을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량
- 법당 30평, 요사40평, 대지 465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3577-9947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도청 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사찰, 연수원, 예술공방 최적지
- 자연경관최고, 천평, 황토건물 50평 2층
- 경내 500년 큰나무, 연못조경 옆큰저수지
- 오래된 돌담, 국유지 200평
- 가액 : 9억(전세가능)

010-9805-552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 (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 - 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전망최고, 대형 우물샘 있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1640평
- 건물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전망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12억 5천만

010-6288-906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부근
- 대지 175평, 법당11평
- 친견실,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텃밭, 아미타도량
- 가액 : 9,275만원(시설비 포함) 8,750만원(시설비 제외)

010-8503-5769
055)833-57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시장
- 4층 건물 중 3층, 37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탱화
- 법당, 상담실, 공양간, 방 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집기 시설및 비품 1200만원

010-4112-0108

포교원(급)안내

- 강원도 동해시 시청 옆상가 2층 독채
- 상가평수 50평(등기평수보다 넓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66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 시설비 : 1천5백만원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완비 방2개, 화장실 겸 샤워장 2개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소승 건강상 급 양도)

010-9018-6656

토굴월세/사찰전세

- 위치: 대구 주택가
- 토굴 54평
- 법당, 공양간, 방3개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300만원
- 도심의 사찰 전세도 구합니다

010-2168-2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 2개, 창고 : 2 개, 종무실, 최고의 시설, 시장옆, 전망
- 좋은 요충지. 오래된 포교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150만원 시설비 조금. 전화주세요

핸드폰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1640평
- 건물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전망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평시장 근처
- 약 100평, 삼존불 연등 300개, 방4개 법당용 부엌 공양간 따로 있음
- 창고 LED 등 일체 유동인구 많음
- 현재 비구니가 운영하고 있음
- 몸만 오셔도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 시설비 3,500만

010-8754-6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 고속, 상동 IC에서7분, 남해고속, 동김해 IC에서 15분거리)
-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법당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등 100평
- 법종시설, 법당, 요사채,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포함
- 복지시설, 선원, 연수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12억

010-3847-4705

포교원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중심권 포교원
- 3층건물 3층 80평, 심야전기, 차고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 집기시설 최상, 음향시설, 몸만오시면 됨
- 법당, 아파트식 요사채, 방5개, 사무실, 주지실
- 가액 : 1)보증금 3,000만원 월 25만 2)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집기 1,500만원

010-9546-2255
꼭 하실분만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157평
- 법당 25평
- 시설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부근
- 3층 건물 중 2층 42평
- 삼존불(동불), 아미타, 약사, 소불100여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500만 월 60만 시설비 1,500만

010-2656-7775

(신축)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 (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찰(급)안내

- 위치: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대로변, 영산 IC에서 8분거리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 요사채(60평), 화장실2, 석탑, 주차장, 창고, 150M암반수 및 상수도
- 산밑에 위치, 심야보일라, CCTV설치, 계곡물 흐르는 최고의 명당위치
- 가액: 3억 3천만원(융자3천 포함, 답사후 조정)

010-4499-1618
010-8664-825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 약 170, 법당 약 20평
- 산신각, 용왕단, 요사채 방4,
- 산좋고 물좋은 40년 된 고찰
- 가액 : 7,500만원

010-5308-08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 8층 건물에 7층. 50평. 바다전망
- 법당,공양간,친견실,작은방2
- 삼존불,탱화,소불,인등,연등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 월 60만 시설비 1500만

010-8550-8080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부근
- 매실 15나무 소나무 남향 3,200평
- 가액 : 총 4,500 만원

010-9471-097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 완전바닷가 전망최고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양도, 전월세 현장 답사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010-5370-507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73-44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700만원

010-3589-8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가야산 국립
- 공원 제일 윗동네로 경관이 수려한 조용한곳
- 면적 약 360평, 45평, 임법당, 방2, 법당1 접견실, 수세식 화장실2 공양간, 화장실 온수기 설치2대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 5, 욕실 1, 화장실 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 가액 절충

010-8008-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두 반송2동
- 평수 : 50평, 4층건물중 4층...정원이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또는 1,0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가능,주인직접)

010-2608-7277

제주도 서귀포시 사찰임대

- 사찰내로 연중 한라산물 흐르는 명당사찰
- 큰법당,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완비 • 시설비 없음
- 보증금:3000만원, 년세:300만원 (월세전환시 월30만원)

010-3111-1275
064)724-4690
추기 : 사찰넷 사진참조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4거리
- 2층 시장인접 교통편리 포교하기 좋음
- 법당, 주방, 방2개 모든 조건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2230-3575

사찰안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생각사용 설명서

전현수 박사 (정신과 전문의)

〈1〉 생각을 보다

생각을 줄여라… 불안·망상 멈춘다

이 책은 환자들에게 생각의 속성을 설명하고 생각이 어떻게 괴로움과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는지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준다. 저자가 진료를 하면서 만난 환자들의 대부분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명상법을 알려준다. 명상을 통해서 생각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저자의 경험과 그러한 경향이 저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생각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환자들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을 5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환자들 공통점…생각이 많다는 것
불면증도 생각이 많아 생기는 것
도심운전 · 번화가 걷기는
생각 멈추는 데 도움 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왜 생각이 문제인가?

정신과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이 많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병에 따라 생각의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생각이 많다. 강박증 환자의 경우 '이 생각은 터무니없는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콧물과 코딱지가 더럽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강박증이 있는 여자 환자는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코를 만지고 난 뒤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것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불안증이 있는 경우 불안한 내용의 생각이 자꾸 든다. 망상이 있는 경우 망상과 관계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생각이 적은 환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정신과 환자들이 생각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병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에 부딪쳐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고민만 하다가 병이 난다. 병나는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한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병이 난다.

불면증도 생각과 관계가 있다. 잠을 못자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불면증의 시작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잠을 잘 자는 비결 중의 하나는 잠을 잘 때 생각이 나면 따라 가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잔다고 누웠을 때 잠이 들지 않으면 생각을 한다. 이때 생각이 나면 가능하면 생각의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잔다고 누워 있는데 생각이 나는구나' 하며 생각 자체가 난 것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거기서 끊긴다. 그러고는 편안히 누워 있는다. 그러다 보면 잠이 온다.

생각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생각을 줄이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일이 있어 소개한다. 약 20년 전의 일이다. 그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내가 정신과 의사인 줄 모르고 나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택시 기사는 원래 가구점을 운영했는데 가구를 직접 만들어 팔았다. 가게는 잘 되었다. 그러다가 가까운 친척과 같이 일하게 되었다. 친척은 기사가 보기에 열심히 일했고, 자신을 도와 사업이 잘되는 줄 알았다. 기사는 친척이 참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척이 회사 돈을 다 빼돌렸다. 가게는 곧 망했다. 그런데 가게가 친척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다. '아! 이러다가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사업도 망했지만 자신도 파멸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방법을 찾았다. 처음에는 쉽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택시 운전을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만족스럽다고 했다.

만약 이 사람이 택시 운전을 안 했다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생각을 멈추기 어렵다는 환자들에게 도심에서 운전을 하거나 명동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걸어 다니라고 권한다. 그러면 그 시간만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을 줄이면 줄인 만큼 편안해진다

생각을 줄여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40대 초반의 남자 환자는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같은 나이의 직장 동료가 사무실에서 쓰러져 갑자기 죽고 난 뒤부터 문제가 생겼다.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싫고 사무실에 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뛰는 신체적인 증상이 생겼다.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그랬으니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런 생각 속에서 2~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져 금방 죽을 것 같아 가족들에게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해 응급실에 갔다.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렇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었고 혈압과 맥박도 정상이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그 후에 심장정밀 검사를 하였는데 역시 정상이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달 만에 나를 찾아왔다.

스스로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무실에 있을 때 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성격이 참을성이 적고 다혈질이라고 했다. 나도 진단 후 공황장애로 생각한다고 하고 환자가 염려하는 것은 환자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불안을 다스리는 약과 불안이 있을 때 자율신경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스리는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현재 이 순간 일 초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가지 않는 것이 약을 복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일러주었다.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걱정하는 쪽으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길이 나서 쉽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마음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주었다. 환자는 약을 먹으면서 내가 말한 것을 꾸준히 실천했다. 환자는 미래에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한다면서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사무실에서 과거와 같은 생각이 들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에 집중하니 거의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때부터 약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다. 환자가 올바른 노력을 하여 좋아지면 그만큼 약을 줄여도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 환자는 마음을 편히 먹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태를 전에는 오로지 없애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죽지는 않으니까 괜찮고 내 삶의 일부분이고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환자는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올바른 노력을 계속했고 치료한지 6개월 후에 약을 안 먹고도 괜찮아졌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여유 있게 웃었다. 요즘은 그냥 웃으면서 지낸다고 했는데 아주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다.

생각을 줄이면 줄인 만큼 편안해진다. 정신적인 문제나 고통이 줄어든다. 그래서 치료의 초점은 부정적인 생각이 처음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채서 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둔다.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어떤 환자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 환자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과 생각이 났을 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했더니 어느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다. 그 뒤로 이 환자는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확실히 알게 됐다. 누구든지 문제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자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 결국 스스로 해야 한다. 물론 치료자와의 만남 속에서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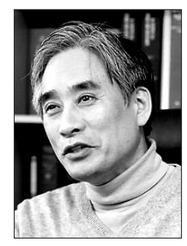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생각에서 괴로움이 오고 생각을 잘못 다스릴 때 정신건강이 나빠진다면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생각을 다스리려면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계속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그냥은 되지 않고 훈련을 해야 한다.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몸 관찰은 마음 관찰보다 쉽다. 몸을 관찰하는 것을 충분히 하면 미세한 마음도 관찰이 가능해진다. 아침에 눈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현재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계속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그냥은 되지 않고 훈련을 해야 한다.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몸 관찰은 마음 관찰보다 쉽다. 몸을 관찰하는 것을 충분히 하면 미세한 마음도 관찰이 가능해진다. 아침에 눈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현재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계속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그냥은 되지 않고 훈련을 해야 한다.

전현수 박사는…



정신과의사이자 불자로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등학교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되었다. 다시 한양대학교 의대 대학원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교를 본격적으로 만난 건 신경정신과 전공의 2년차 때다. 그 후 환자를 만나 정신치료를 하면서 불교 수행과 공부를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보편적 지혜를 정신치료에 응용해 갔다. 저서로는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 등이 있다.

나는 것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것을 알고 느낀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일어난다. 세수를 할 때 손이 움직이고 물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낀다. 그때 물이 얼굴에 닿는 것도 느낀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밥을 먹는다. 우리는 밥을 입에 넣자마자 씹는데 그러지 말고 숟가락을 밥상에 놓고 눈을 감고 한 번 입안에 든 음식을 씹어본다. 그러면 입에 침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낀다. 평소에도 항상 음식을 씹으면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것을 느끼면 기분이 좋고 소화가 잘된다. 이처럼 뭘 하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알면서 그 일을 한다. 길을 걸을 때는 발과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알면서 걷는다. 이렇게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는 데 생각이 나면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러고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온다. 현재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기 쉽다. 현재 하는 일과 생각이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생각이 나면 그것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리고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온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처음 생각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첫 생각을 알아차리면 다음 생각이 오지 않고 정지된다. 내가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나를 지도해주는 분에게 '어떤 생각은 잠깐 머물고 어떤 생각은 오래 머문다' 고 하니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생각은 빨리 없어지는데 오래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고쳐주었다. 사실 그렇다. 모든 생각은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내 경험에 의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불꽃놀이 때 공중으로 쏘아올린 폭약이 조금 후 유성의 꼬리 같은 것을 남기며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유성처럼 사라진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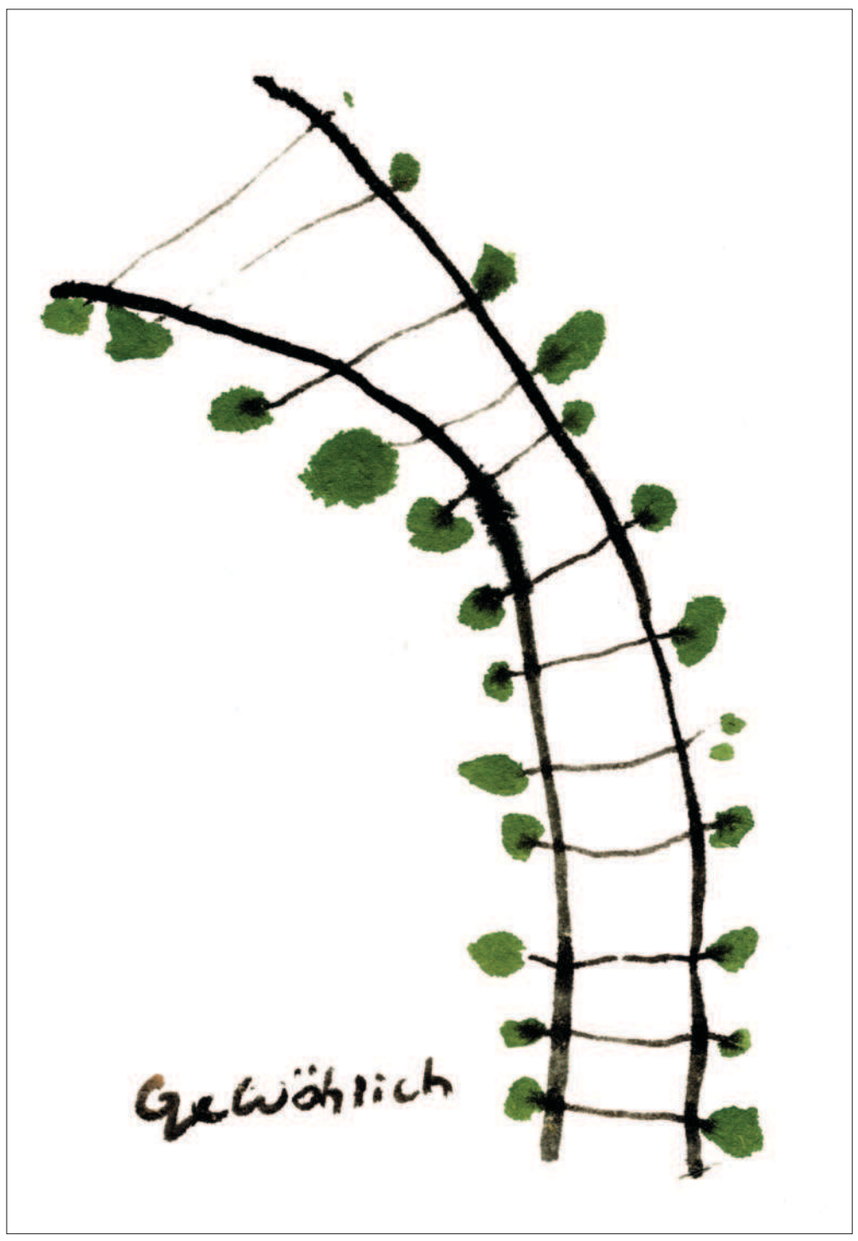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갤러리 색즉시공



부처님은

한 계단
두 계단
모퉁이 돌아
또 계단….
노보살님들은
허리가 휘청합니다.
와이리 부처님은
높은 데만 계시는지….
노보살님들은
벽 짚고… 하늘 한 번 쳐다봅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苦에서 벗어나 '金剛心' 가지기 위해…

Buddha in Comic & Ani

⑯ 아라카와 히로무의 〈강철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판 포스터. 〈강철의 연금술사〉는 연금술이라는 판타지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성찰을 가미했다.

2000년대 시작과 함께 만화 왕국 일본에는 신진 만화가들의 역작들이 대거 등장했다. 현재 일본 만화를 이끌고 있는 〈원피스〉를 비롯해 〈블리치〉, 〈나루토〉 등이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다. 지금은 연재를 마무리했지만, 첫 작품부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만화가 바로 아라카와 히로무의 〈강철의 연금술사〉(2001~2010)다.

〈강철의 연금술사〉지금은 〈은수저〉와 〈백성귀족〉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가의 첫 장편 연재작으로, 소년만화 답지 않은 시니컬하고 암울한 전개 속에도 언제나 주어지는 희망의 길을 나아가는 소위 '소년 만화의 왕도' 를 절묘하게 병치해 인기를 끌었다.

총 27권으로 연재가 마무리됐으며, 누적 발행부스는 일본에서만 5700만 부를 넘어선 히트작으로 당시 마이너 잡지였던 연재처 '소년 간간' 을 단숨에 메이저로 부상시켰다. 또한 각각 2개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소위 '레전드' 급 작품이다.

충격의 오프닝과 죽음의 성찰

앞서 이야기했듯 우정, 용기, 도전을 이야기하는 소년만화와는 다르게 암울한 전개로 눈길을 끌었던 〈강철의 연금술사〉는 첫 장면부터가 압도적이다. 서양 신비주의 마법에서 보일 법한 마법진 위에 한 소년이 자신의 없어진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는다. "가져가 버렸어…."

〈강철의 연금술사〉는 이 같이 충격의 오프닝을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잘려나간 다리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복선의 회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는 두 형제의 여정으로 집중된다.

에드워드 엘릭(이하 에드)과 알폰스 에릭(이하 알) 형제의 아버지는 뛰어난 연금술사였으나 이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홀로 두 형제를 키운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 숨지고, 형제는 연금술을 배워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금기 '인체연성' 에 도전하려 한다.

결국 스승을 만나 연금술을 배운 형제는 어머니를 연성해 내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실패의 대가는 컸다. 연성의 실패로 인해 형 에드는 한쪽 다리와 팔을 잃게 됐고, 동생 알은 육체를 잃어버리고 혼만 남게 된다. 형제는 국가연금술사가 돼 자신들의 몸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이 같이 〈강철의 연금술사〉가 던지는 첫 질문은 '생명과 죽음' 이다. '불로불사' 와 '생명 창조' 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꿈꿔왔던 꿈이었고, 지금도 과학을 통해 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

〈프랑켄슈타인〉의 또 다른 변주곡

스승마저 금기한 '인체연성' 이라는 자연법칙에 대한 도전은 마치 19세기 메리 셸리의 괴기소설 〈프랑켄슈타인〉과 흡사하다. 젊은 과학자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 때문에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자연법칙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고 급기야 그 법칙에 도전하게 된다. "인간을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의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입증된다.

형제 연금술사의 여정 속에서 '불로불사' 등 인간 탐욕 비판 연금술이라는 서구식 판타지에 순환의 진리 가미해 성찰 이끌어

〈강철의 연금술사〉는 프랑켄슈타인의 또 다른 변주곡이다. 어머니를 잃은 형제는 생로병사의 법칙에 도전해 어머니를 부활시키려 한 '탐욕' 으로 인해 자신들의 육체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다른 '탐욕' 을 가지고 형제는 여행을 시작한다.

그들의 여정에서 적으로 등장하는 호문클루스 집단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움직였다. 호문클루스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우로보로스 문양(자기의 꼬리를 입에 물고 있는 뱀. 본래 의미는 순환하는 시간이다)처럼 탐욕과 악업의 고리가 영겁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강철의 연금술사〉를 이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은 연금술에 대한 것이다. 서양 신비주의 중 하나인 연금술사란 새로운 소재를 차용한 것이 작품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순환의 진리가 담겨있다. 이는 불교의 연기와 화엄사상과도 맞닿는다.

실제로 주인공 형제에게 연금술을 가르치는 스승 이즈미는 인체연성을 묻는 형제에게 이렇게 답한다.

"살아있다면 언젠가 육체는 다해 흙으로 돌아간다. 그 위에 풀이 나고 꽃이 피게 되며, 영혼은 추억이라는 양식이 돼 사람들 마음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고 순환하고 있다. 사람의 삶 또한 그렇다."

작품에 나오는 연금술은 순환이라는 대자연의 섭리를 강조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라는 순환의 고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물질을 재구축하는 것이 연금술이라는 것이다.

이는 화엄사상과도 맞닿는다. 스승이 형제에게 던진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라는 화두는 작품 내내 강조되는 텍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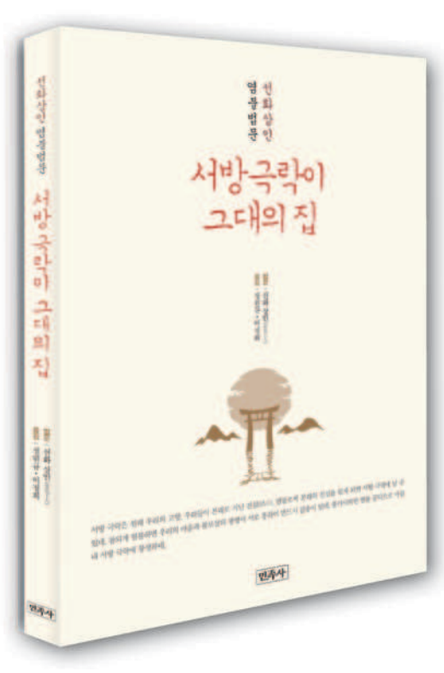
세상을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과 그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만물의 순환은 자연이라는 고리에서 이뤄지지만 '나' 라는 주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결국 작품에서의 연금술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존재하고 죽어가는 진리를 알아 가는 과정이다.

자연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명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은 선악의 분별을 넘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 고리를 통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순환의 고리를 이해해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편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형제가 보여주는 여정의 마지막에 작가는 이렇게 강조한다.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교훈에는 의의가 없다. 인간은 희생없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으므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철과 같은 마음' 을 갖게 될 것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괴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염불 수행
근 · 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한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바다를 건너는 이치임을 깨닫게 합니다.
참되게 염불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來生)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빠져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 선장을 진짜로 믿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합쳐서 떡을 세 켜만 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많은 대로 일곱 켜를 해놓고, 많으면은 아홉 켜를 해놓더라도 그저 세 켜만 해놓고 해도 되고, 또 세 켜를 못 해놓으면 한 켜만 해놔도 초, 향 그리고 다기물, 큰 그릇에 물 떠서 상 옆에 하나 놓고, 너무 섭섭하걸랑 과일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한 그릇에 놓고 그러고 지내면 벌써 조상들은 법당에 들어오면 어디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스님네들 마음부터 봅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느냐 하면은 아, 이 재(齋)비용은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치를 흥정했고 얼마가 남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왔다가 위패로 돌아갑니다. 위패 옆에 꽃을 해놨다면 꽃에 응접하고요. 그렇게 자유스럽게 왔다가 자유스럽게 나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보면은 벌써 그 상이 덜 차려졌고 더 차려졌고 요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런 공부 하는 스님네들한테 벌써 척 들어오면은 삼계(三界)의, 삼세(三世)의 그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으로써 그냥 광대하게 벌어진 것을 착 앎으로써 "허허!" 하고, 아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스님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스님의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그 차원대로 알고, 또 차려놓은 것도 그렇게 뜻이 있으니까요. 그 둥글어서 둥근 안에 모두 들어서 천지가 다 내 천지이니까, 내 거 아님이 없으니 그 조상한테, 내 거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어떤 거를 쳐야 되며 어떤 것이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조상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서 그런다면은, 그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덜 차리고 더 차리고, 이런 데만 집착을 하고 온통 그냥 이집 저집 일가친척으로 다니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와도 본척 만척하고 이런다고 사단이 벌어지죠. 그래서 죽은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산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 어정거리다가 일가친척이 오면은 자기를 본체만체 했다고 탁,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고 떠다박지르면 그게 병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생활 자체가 교재고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재료니깐요. 이제 위패도 그, 재(齋) 지내는 거와 결부돼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셨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당시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그냥 여여하게 살아계시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게 없이 그냥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서 듣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 지내는 거 얘기해드렸죠? 그 천도재를 해도 억만금을 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도재를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차려놓고 하질 않아서 "싫다." 한다면 나는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러는데 그 재 지내는 거, 위패를 해놓는 거, 위패를 거기다 붙여놓고서 그러지 말고 지낼 때마다 위패를 접어서 하시라 이겁니다. 붙여놓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벗어나는 데 지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하셨어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나도 못 벗어나는데 조상을 어떻게 벗깁니까?

그러하니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한 가지, 허허허. 이거 이왕 얘기하는 끝에 얘기하죠. 방생을 할 때에, 나는 방생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8·15 해방 되고 나서 수없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드는데, 차 대가리 위에 모두 빡빡하게 들어서서 타고 오죠. 그런데 그냥 가다가 이리로 떨어지고 저리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가관이에요. 차를 내려서도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온통 서로들 헤매고 굶고서라도 그냥, 그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가면서 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처참한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잘 노는 거를 잡아다가 말입니다, 진흙에서 노는 미꾸라지를 잡았다면은 맹물에다가 딱 담가놓습니다. 허허허. 그러면 그게 온전할까요? 그거 미꾸라지뿐이 아니라 거북이랑 뭐 고기랑 모두 잡아다 놓으면은 잡는 데 죽고, 잡아다 놨을 때 죽고, 갖다가 물에 넣었을 때에 죽고, 찾아가다가 죽고, 허! 몇 명이나 살리는 겁니까, 그게? 살리는 겁니까, 그게? 오히려 고문하는 거지.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

사람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람도 그렇게 했죠. 일제시대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탄광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했었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선덕을 쌓고 방생을 하려면, 지금 부모 없이 사는 애들도 많고,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지금 이렇게 먹는 게 흔한데도 먹지 못하고 흔치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구제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덕이 아닐까요? 그리고 방생을 하려면은 차라리, 스님네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스님네들도 사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사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곤궁합니다.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찰에 주지로 계신 분을 갖다주는 거보다도, 오히려 주지로 안 계신 분,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공덕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은, 그르고 옳은 거를 전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고등동물로 태어났어도 그르고 옳은 거를 모른다면, 부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소용 없는 일이죠. 이날까지 부처님이 가르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이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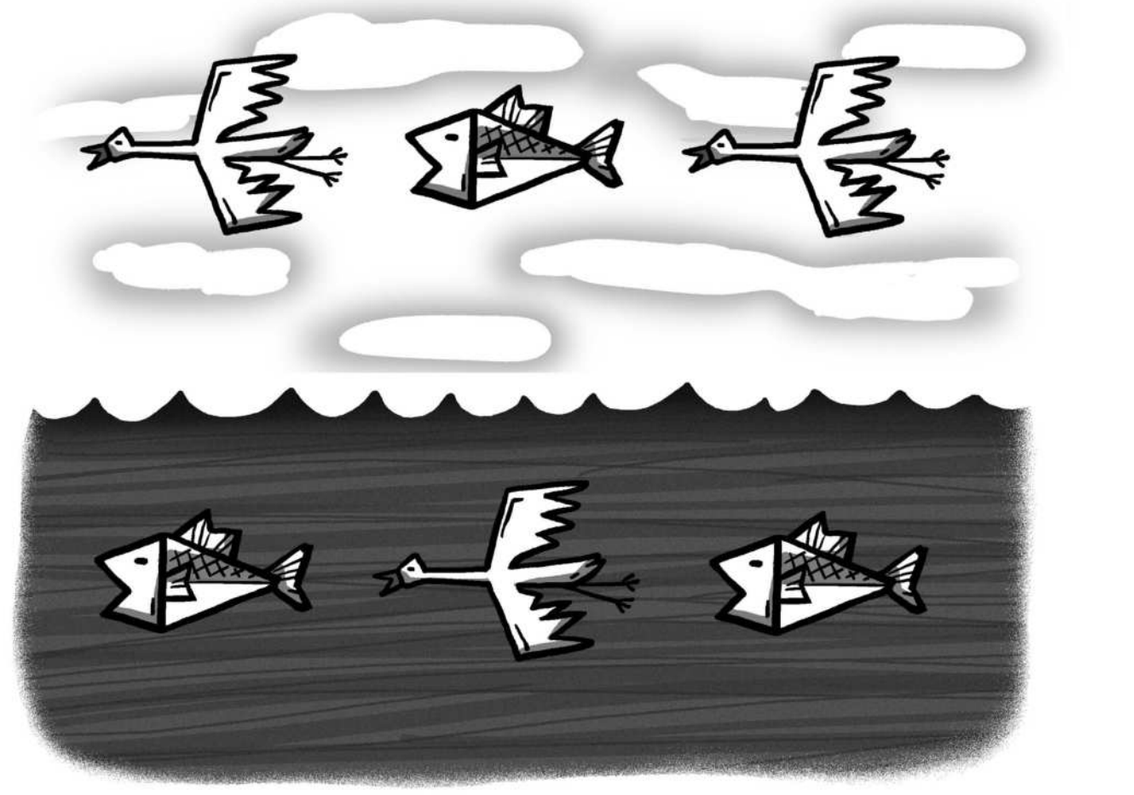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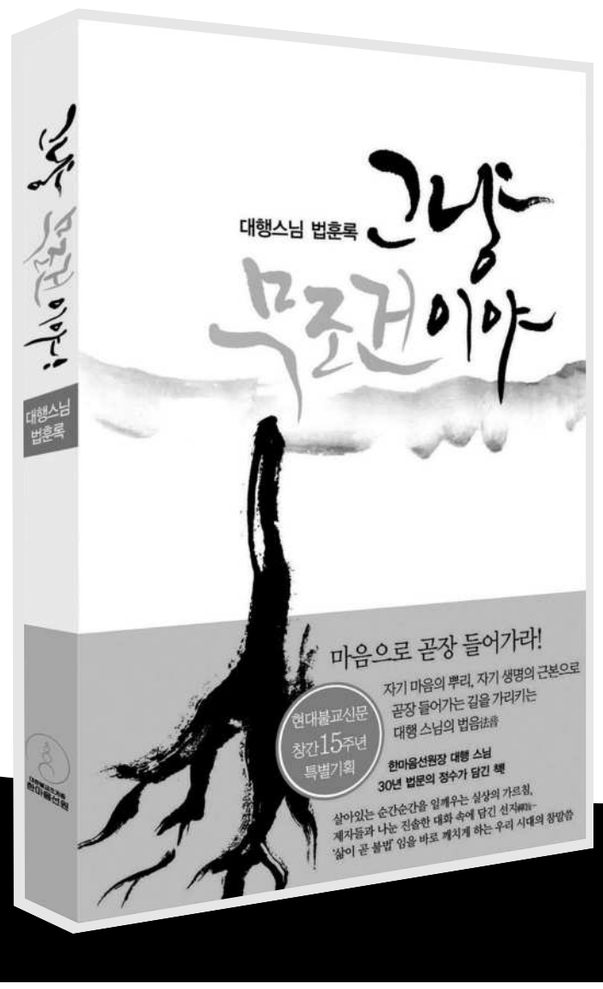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 21면에서 계속

그저 이 모습 저 모습 보인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니라고 보지 마세요. 한국에도 역대에 일컫는 부처님들이 많이 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고요. 모습만 각각이면은 죄 각각이라고 보지 마세요. 모두가 한 부처 한 제자예요. 여러분까지도 말이에요. 또 하나 빼먹은 게 없나? 아니, 빼먹은 거 같기도 해. 이왕 말하는데 뭐. (대중 스님을 향하여) 뭐 빼먹은 게 없니?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러하니까,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더라면 종교도 없고 상대도 없고 상대성의 원리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형성시킨 장본인 선장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여북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너희들의 몸뚱이는 허허바다에 띄워놓은 배와 같느니라. 그리고 그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했느니라." 몸속에 중생들이 잔뜩 탔죠? 지금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꽉 탔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그저 파도가 치고 이런다고 해서, 그 마음들 의식들이 다 제가끔 그냥 벌렁벌렁 뛴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여러분은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 속의 중생들과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 집, 시자 겸 관리인 겸 바로 집입니다. 그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 말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으로서 먹여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목마르다면 물 주고 춥다면 입혀주고 그냥 다 이럽니다. 이러는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잘 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긴 줄 알아요. 자기가 혼자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벌었고 자기가 망했고 자기가, 매사 것이 자기예요. 자기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자기라는 거 내놔보세요! 자기 몸속에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천차만별의 모습들과 생명들과 의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산다고 그러겠어요? 더불어 사는 주인공이죠. 공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공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다스리는 선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를 형성시켜 내놓은 수없는 광년의 겁을 거쳐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형성시켰던 자기! 자기가 지금도 형성시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넘어가죠. 사람이 지구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구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 하죠.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에 우리가 하나 잔뜩 타가지고는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내 거니 네 거니 내 의자니 네 의자니 하고 싸움박질들을 하고, 아수라장처럼 하고 서로 뺏고 잡아먹고 하고, 그 차 안에서 온통 난리가 나죠? 차 바깥은 한 치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큰 일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애 적이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모두 그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안에서 생산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겸해서 도로 생산을 해내서 모두 사대로 통신이 되고 작용을 해서 이렇게 모두 삽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쇠퇴해지니까 속에서 생산하는 것도 적어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적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큰스님: 똑똑히 잘 들으세요. 적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몸 한 채에 그 에너지는 쇠약해지게끔 돼 있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죠?

그렇듯이 지구가 몸이라면, 우리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지금 아귀다툼을 하고 모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저 누에벌레가 뽕나무 먹듯 하고 갑니다. 우리 전체가 뽕나무 먹듯 해요. 생각해보셨습니까? 생각하시고 사셨습니까? 허허허. 얘기를 안 해드리면은 모를 것 같아서, 한 번도 생각해보는 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누에가 뽕나무 먹듯 하고 그냥 버석버석 버석버석 먹어들어가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다 충당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금 지구에 붙어서 누에가 뽕나무 먹듯 하고 가고 있습니다. 땅 속이나 바깥이나 허공이나 뭐 막론해놓고 그렇게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인체에 에너지가, 수명이 짧아지듯이 그 지구의 수명은 짧아지지 않을까요? 수명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대중: 짧겠습니다.

큰스님: 그냥 먹어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중엔 먹을 게 없으면 쓰러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쓰러지면 다 그냥, 생명들이 다 쓰러지게 돼 있죠. 사실 생각한다면요 참, 우리 사는 거 보면 벌레 같기도 해요. 뭐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 아주 생각들 하지만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때는 딱할 때가 많아요. 나부터요. 나는 빼놓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마음공부를 결사적으로 아니 한다면, 이웃 동네의 다른 혹성이나 다른 우주성이나 다른 별성, 다른 태양에 모두 연결이 두절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두절이 되면은 그냥 다 죽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장마가 들어서 크게 망가지고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딴 동네 딴 나라에서 다 봐주듯이 말입니다, 딴 나라에서도 봐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마음공부를 해야만이 팽창되는 거를 줄일 수도 있고, 타버리는 것을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처럼 에너지를 그렇게 파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양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대치 방법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마음이 선량하고 착하고,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뺏지 않고, 서로 그냥 순리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된다면, 에너지를 먹어들어가는 게 삼분의 이는 줄어집니다. 이 모든 게 어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이 지구의 오존층이 무슨 탈이 났다든가, 또는 비행기가 날아가다 탈이 났다든가, 무슨 어디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 마음공부를 해야만이 그걸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만한 내 집안의 내 식구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 식구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남의 식구도 보호할 줄 알지 내 식구를 보호할 줄 모른다면 남의 식구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벗어나게 못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벗어나며, 내가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내 식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내 식구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구의 모든 거를 벗어나서 통신이 되게 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게 하고 모든 거를 자유자재하겠습니까?

그래서 별성은 수명이 길고 짧고 간에, 대체적으로 볼 때에 우주가 별성을 낳을 때에는 모든 거를 흡수해서 생산을 하고 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콩 한 쪽 심어서 콩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공급을 하고, 또 하나는 콩나무로 또 화해서 또 공급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해야 하는데 만약 이 마음공부를 아니 한다면 타파가 아니 된다 이 소립니다.

만날 우리가 그냥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하고 우리 자식 나가지 않게 하고 뭐 어쩌고, 공부 잘하게 하고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그대로 실천해야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저 좋은 말 하고, 따뜻하게 행동을 해줘서 집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주고, 안으로 '주인공은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겨놔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나다니기 싫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강제로 "너 요놈아, 요 깡통을 찰 놈아!" 그러고 욕을 하고 "네가 배울 때 못 배우면은 지게밖에 더 지겠니?" 이러면 그 말이 씨가 돼서 오히려 자식들이 활발치 못하게끔 살게 만들어주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자식을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참 세대가 틀려서 할 수 없구먼!"이러고, "그거 세대 차가 나서 아이고, 그 구태의연한 말씀 좀 고만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선 구박이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좀 융통성 있고 지혜롭다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어머니가 그저 잘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아들이 잘된 줄 알고 좋아서 기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좋아서 그 관(觀)하는 거를 가르쳐드리면은 돈이 드니 못합니까, 무슨 노력이 드니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고 찾는데 뭐가 원통해서 못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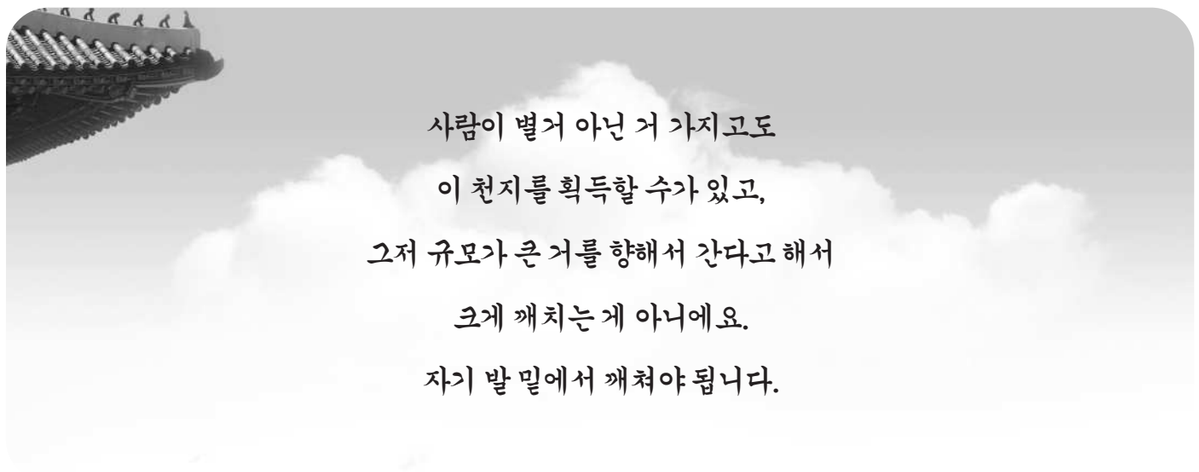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자녀들과 부모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준다면, 승천을 하지 말래도 승천을 하게 돼 있어요. 벌써 죽기 사흘 전에 턱하니 그리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입력이 돼요.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또 천안통 천이통, 이것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종합된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된다면 입력된 대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에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입력을 다시 한다면 바로 누진(漏盡)으로 벗어나요. 자꾸 말입니다, 그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만 해버릴까요?

여러분이 내가 용어를 몰라서 말이 좀 더듬거리고 좀 안됐다 하더라도, 배운 여러분은 잘 듣고 행하고 진실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사무장님도 어디서 뭐 받았죠? 오늘 질문하지 말게 하시라고요. 내 그런 거 뻔히 얼굴 보면 나타나는 걸요 뭐. 허허허.

사회자: 원래 없어요, 스님.

큰스님: 사람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 천지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저 규모가 큰 거를 향해서 간다고 해서 크게 깨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 밑에서 깨쳐야 돼요!

※위 법문은 1995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영적 웰빙' 아닌 '맑은 가난' 을 생각하라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지난 8월 30일 방영된 KBS2의 '추적 60분' 에서는 '꽃동네에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웅진 신부의 '꽃동네' 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쳐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적 60분' 은 8월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는 모습과 8월 6일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장면으로 우선 꽃동네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오후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았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희망의 집' . 이곳에서 교황은 중증 장애성인과 어린이들을 만나 손을 어루만지고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 '을 불어 넣어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광경은 많은 국민들에게도 감명 깊었으며 꽃동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하였다.

그렇지만 30일 '추적 60분' 을 보면서는 꽃동네의 '복지사업체로서의 순수성' 을 의심하게 되었다. 충북 음성과 경기도 가평 2곳의 수용인원만도 4000명에 달하는 '꽃동네' 는 국내최대의 사회복지 시설이다.

1976년 고 최귀동 할아버지와 오웅진 신부의 만남에서 시작된 '꽃동네' 는 오랜 세월 '사랑과 봉사' 의 상징이 되어왔다. 그런데 1998년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 됐다. 토지의 불법사유화와 논란과 제기된 횡령과 배임이라는 혐의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2003년 6개월 수사 끝에 발견된 꽃동네 부동산은 312만평, 여의도의 3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다. 수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07년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지만,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고발과 함께 꽃동네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추적 60분' 제작진이 건국대 부동산 도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꽃동네 매입토지는 550억원 정도의 가격 수준이고 또 여러 명의를 가진 토지가 비슷한 날짜에 천주교 청주교구로 근저당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곳은 오신부가 30%의 지분을 가진 영리재단이고 특히 대표권은 오 신부에게만 주어졌다.

재벌닷컴 정성섭 대표는 "종교단체에서 대표권 제한은 이례적이다. 내부 이사의 운영확인을 차단한 것"이라 지적, 이 재단이 내막적으로는 모 신부의 것으로 사유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사건이후 구원파 유병언의 부동산 매입과 차명등기, 근저당 등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종교단체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꽃동네는 국고의 복지지원도 많다. 충북 음성군에서 복지예산 960억원 중 26%인 255억, 경기도 가평군에서 복지예산 719억원 중 20.4%인 148억이 꽃동네로 지원된다. 두 곳의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연간 400억 원이나 된다. 주민들은 꽃동네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두고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아차렸음인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6일 꽃동네에서 열린 4000여 수도자와의 만남에서 "청빈(淸貧)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고 했다.

불교에서 '무소유' 를 주창하는 것은 법정스님의 말씀대로 '맑은 가난' 이 어떠한 부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소유' 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부패와 부정은 필요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탐하는 데서 비롯된다. '맑은 가난' 은 바로 '청빈' 이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오늘날 너무 물량화(物量化) 되었다. 신부가 사재를 탐하고, 목사가 교회 돈을 부당하게 쓰고 또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세습을 일삼으며, 스님이 돈선거, 도박논란의 작태를 보이니 모두 돈이 종교로 몰리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돈에 물들어 타락하면 가난한 민초들은 찾아갈 법당이나 교당이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한국의 모든 종교가 깊이 새겨야 할 금언이다.

"영적 웰빙에 빠지지 말라. 번영할 때 유혹이 온다. 잘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가난을 창피하게 여기게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번영, 영적 웰빙의 유혹이다. 그러면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없다. 반대로 부자들을 위한 부자교회, 중산층을 위한 교회가 된다."

'맑은 가난' , 이것이 우리 불교 교단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인천아시안게임 서포터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인천 자비나눔 공동체 불자 서포터즈 단원들은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단원들의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인의 따뜻한 情 느끼게 해주고파



양미선
인천 자비나눔공동체 불자 서포터즈 단장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장 종호스님과 인천불교 조계종총연합회장 종연 스님, 고문 선일 스님을 비롯한 인천지역 조계종 사찰 스님들이 인천 자비나눔공동체 불자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단장으로서 그리고 신도 입장에서 최대한 스님들의 지시를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포터즈 회원들은 △불자 선수 응원 △내외국인 안내 △불교국가 선수 응원(비인기종목) △지역 봉사활동(터미널과 항만 등 안내, 환경정비 등) △불교국가 선수단을 위한 불교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시안게임을 위해 참가한 해외 선수들이 불교를 접하고 사부대중의 기도와 응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선수단 규모가 작아 응원단이 없는 각국 선수들을 위해 대신 응원을 해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밖에 적극적인 자원봉사로 대회의 성공적인 회향도 도우려고 한다.

이번 자비나눔 공동체 활동은 인천지역 불자 조직을 강화해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들로만 구성됐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황룡사, 흥륜사 등 신도수가 많은 타종단 사찰도 많은데 참여사찰이 조계종 사찰로만 국한돼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불자 서포터즈' 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불교 세계화' 와 '지역불교 위상 강화' 를 위해 발족된 만큼 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 불교 활성화에 기폭제 될 '서포터즈'



김기호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인천 자비나눔 공동체 불자 서포터즈의 결성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 불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교세가 열악한 인천 지역에 새로운 포교를 열어갈 구심점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아시안게임에서의 봉사는 지역 복지관들과 연계해 활동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 외국선수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9월 13일 개원과 동시에 공개되는 불교 종교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가국 중 불교국가가 많은 만큼 이곳을 찾는 외국선수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참선지도 △연등만들기 △다도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 3세계 국가 비인기 종목에 한해 응원단을 구성해 찾아갈 계획도 있다. 5~6백명의 서포터즈들이 조를 나누어 응원단으로 참석,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용기를 얻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서포터즈는 이번 행사의 봉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성, 포교자원의 인프라를 넓혀나가고자 한다. 특히 자연환경캠페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복지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하며 불교를 알려나갈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인천 지역 포교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社說

선지식의 탈종 선언과 법인관리법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다고 한다. 송담 스님은 '남진제 북송담' 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평가받는 조계종의 큰 어른이다. 그런 스님이 종단에 희망이 없다면서 탈종을 선언했다. 상좌들에게는 불이익이 예상되면 잔류하고 다른 스승도 알아봐주겠다고도 했다.

스님의 탈종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법인 등록을 반발한데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달 용주사 주지 선거의 유시 논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담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법보선원 이사회가 종단 법인 등록 거부를 결의하자 이에 동의했고, 이후 탈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최고 선지식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은 법인관리법 시행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계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찰 법인과 사찰 보유 법인을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인관리법은 전신인 법인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다. 12일 이사회를 통해 등록 거부를 재확인한 선학원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고 대각회와의 이행합의는 중소 법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종단 최고 선지식이 법인관리법을 반대하며 탈종을 선언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법인의 사유화를 막고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관리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 일선 법인들과 빚어질 수 있는 마찰 등을 최대한 시뮬레이션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최소화해야 했다. 선지식을 탈종에 이르게 한 법인관리법, 종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 한인 포교, 독일을 롤모델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재미 교포들의 기독교화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격차가 너무 심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한인 중 71%가 기독교를 믿었고, 이중 61%가 개신교를 10%가 가톨릭을 믿었다. 불자 비율은 6%로 무종교인 23%보다도 적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미국 한인 사회의 개신교와 불교는 10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은 재외 동포 포교에 있어서 타 종교에 비해 물적, 양적으로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불교로서 불자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불교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타종교에 비하여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민 포교 사례는 주목할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내 아시아계 불자 그룹 중 세 번째로 큰 한국불교는 독일 교민 중 31%를 불자로 만들었다. 만프레드 후터 독일 본대학 아시아연구소 학장은 이런 성공 요인이 한마음선원과 베를린 국제선원, 독일 관음선종 등 3개의 한국사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은 매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참여하며 방문자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고 정기 법회를 통해 자국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故 숭산 스님이 설립한 관음선종은 정기적 용맹수행으로 서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일선 사찰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노력이 독일 포교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는 한인 포교에 기반한다. 불자 재외 교포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등 공신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습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Ⅰ·Ⅱ·Ⅲ'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고교미필자 ·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 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 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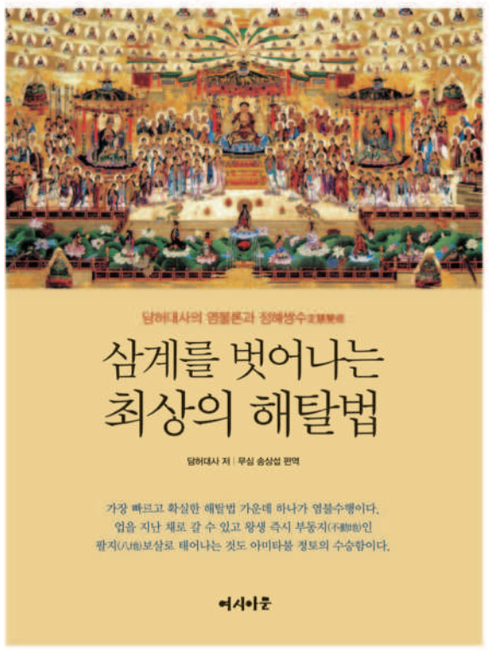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 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教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教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教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青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 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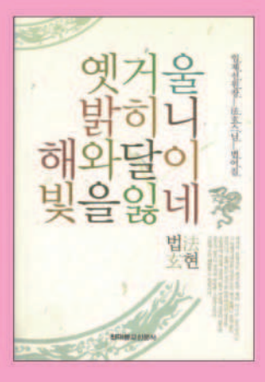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